

RR - 2020 - 05 - 700 호

#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2020.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RR - 2020 - 05 - 700 호

#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 주현재(삼육보건대학교)

공동연구자 : 권준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배영희(오산대학교)

윤승준(단국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에 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  
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This work was funded by 2020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연구결과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표방하면서 전공 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한편으로 직업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교양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방향성을 상실한 채 직업교육의 하위 영역처럼 인식되어 운영되어왔다.

특히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과 함께 시작된 NCS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도입 이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 같은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은 전문대학 구성원들에게 교양교육이 직업기초능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 교양과목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래 교양교육은 직업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전통적인 교양(인문학, 자연학)영역 사이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분명한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은 앞으로 전문대학이 이뤄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업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대다수 전문대학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설정일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 대학들이 교양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곧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표준안이 개발 및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사업’을 시행한 이래로, 현재 40개가 넘는 컨설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질 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의 부재로 인해 컨설팅이 컨설팅 위원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컨설팅 위원 각자의 주관성이 짙은 컨설팅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곧 표준안 개발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의 본질에 부합되면서 직업교육기관의 특색을 살린 기초교양교육을 개발하는 일은 전문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전문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인식조사 등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자칫 대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교양 교육과정 구성, 내용, 운영 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기초자료 수집과 운영사례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교양교육의 미래 방향을 명확히 하는 사전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른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98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정(1998.3.1.)과 함께 전문대학의 교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심하게 위축되고 왜곡되었다. 자율화 조치에 따라 전문대학은 전공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교양교육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다.

교양교육의 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율화 조치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기본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과 함께 도입된 NCS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또 한 차례 변질시켰다. NCS 교육과정의 도입이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 표준화된 국가직무능력교육이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육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한 NCS 교육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전문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 일자리 감소,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창의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 II.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 1.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교양’이라는 말은 19세기 후반 서양 문물을 수용하던 일본의 식자들이 본래 ‘나무를 쪼거나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 Bildung의 번역어로 만들어낸 것이다. ‘주체적 자아의 형성’, ‘인격적 완성’이라는 교양의 근대적 개념은 칸트와 훔볼트에 와서 형성되었다. 교양교육은 형성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미정형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자신을 보다 나은 존재로 형성해 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의 역사를 살펴 볼 때, 교양교육의 개념에는 자유교육의 이념과 일반교육의 이념이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행해지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자유시민이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었다. 그 내용은 이른바 3학(trivium) 4과(quadrivium)라고 하는 자유학예(artes liberales)로, 중세를 거쳐 고등교육의 보편적 내용으로 정착되었다.

상층부 귀족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자유교육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계층의 교육 수요를 포괄하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루어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연과학의 발달은 교육의 대상과 내용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3학 4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또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 들어 하버드 위원회(Harvard Committee)에서는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직업이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전공이 세분화하고 기술교육이 강화되자, 교양교육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역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은 전문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여기에는 ① 문헌 자료는 물론 수식과 도표, 각종 디지털 정보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② 특정 사건이나 상황, 또는 대상이나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③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 또한 논거를 갖추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④ 대학에서의 학업 이수에 필요한 ‘외국어’ 및 ‘기초수학과학’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교양교육’은 형성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미정형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자신을 보다 나은 존재로 형성해 가도록 하는 교육을 교양교육이라고 할 때,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본적인 식견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인간관과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학술적 핵심성과 보편성을 갖춘 교육을 말한다.

## 2. 기초교양교육의 흐름과 변화

정부가 1998년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전문대학의 교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장치는 교양교육의 양과 질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문대학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이 도입되면서다. NCS에는 공통적으로 직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총 10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을 비롯한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과 함께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물론 NCS 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도입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교양 교육과정 체제, 곧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등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낳았다. 하지만 교양교육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전문대학 구성원 간 논의와 협의가 생략된 채 정부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체제를 도입한 일은 결국 교양교육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직업인 양성과 대학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자유교양인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초교양 교육과정 체제가 필요하다.

### 3. 기초교양교육의 목적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그동안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의 함양과 ‘인격, 인성, 참사람’의 함양 또는 육성을 목표로 해 왔다. 일견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또는 목표로 양립해 왔다는 사실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대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기초교양교육 차원에서는 ‘기초, 교양, 사회, 교육, 창의, 인성, 지식, 공동체, 소양, 사고, 소통’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 부서장 중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일부 있다(55%)고 응답했지만, 직업기초 중심의 교양교육으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74%)고 응답하였다.

현재 전문대학의 NCS 기반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의 역량 개념은 단순히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만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이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기초교양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교양교육이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또한 기초교양교육은 전문대학교육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가 기대하는 인재, 곧 비판적·창의

적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Ⅲ.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및 사례

#### 1.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현황

##### (1) 교양교육의 변천

전문대학은 현재 134개로 2년-4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DB연계 취업통계(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71.1%, 진학률은 5.8%로 나타나 학사편입 등 진학 보다는 취업에 특화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3월 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전문대학의 교과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게 되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제도는 대학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직업교육 강화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전공교육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와 같이 상당수의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에 와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확산되면서 NCS기반의 교육과정이 약화된 것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편람 진단지표 중에 ‘교육과정 운영’ (18점)에 직업 ‘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6점)이 포함된 것, 그리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이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기본 현황을 SWOT 분석기법을 통해 살펴보면,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교양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입학자원 감소 등에서 여러 약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대학 지도부 및 교원들의 교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기본역량진단을 비롯한 정부 주도 평가에서 교양교육을 비중 있게 포함시키는 등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내·외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 주요 키워드는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24개교)과 ‘인격, 인성, 참사람’ (24개교)를 비롯하여, ‘기본능력,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18개교), ‘창의, 창의성, 창조’ (16개교),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직업인’ (13개교),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13개교), ‘융합, 융복합, 통섭’, ‘소통,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10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 시키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과 함께 직업교육을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된 영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문대학의 강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학년도 현재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2년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교양학점은 2년제 8.00학점(10.8%), 3년제 14.89학점(13.4%), 4년제 20.84학점(16.0%)으로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평균 13.8%를 차지한다.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36.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1.2%, 비전임교원 52.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2018학년도 대비하여 살펴보면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두 증가하였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초빙, 겸임, 산학중점 교원은 인원수의 증가와 함께 구성 비율도 높아진 반면, 강사는 인원수의 감소와 함께 구성 비율도 감소하였다.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은 1-20명 11.15%, 21-30명 16.15%, 31-50명 41.20%, 51-100명 5.50%, 101-200명 11.45%, 201명 이상 14.60%로 나타났다.

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88개 전문대학 가운데 17개교(19.32%)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 대비 기초교양 학점의 비율은 평균 13.8%로 일반대학의 26.8%에 비해 매우 낮고 그나마도 직업능력개발 관련 교과목과 취·창업 관련 교과목과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셋째,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강좌의 48.55%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이 59.13%의 기초교양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는 상대적으로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대학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기초교양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단위에서 개설된 기초교양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됨으로써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교양교육 전담 조직과 관련 위원회 설치가 미흡하다. 사에 응답한 86개 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1개교(59.30%)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등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도 10%가 넘었다.

## (2) 교양교육의 현황

전문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 주요 키워드는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24개교)과 ‘인격, 인성, 참사람’ (24개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 시키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과 함께 직업교육을 특화된 영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문대학의 강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교양학점은 2년제 8.00학점(10.8%), 3년제 14.89학점(13.4%), 4년제 20.84학점(16.0%)으로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평균 13.8%를 차지한다.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35.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7.3%, 비전임교원 4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44.5%에서 2019학년도에는 52.6%로 증가한 반면,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55.5%에

서 47.4%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은 1-20명 11.15%, 21-30명 16.15%, 31-50명 41.20%, 51-100명 5.50%, 101-200명 11.45%, 201명 이상 14.60%로 나타났다.

## 2. 교양교육의 국내 운영사례

국내 운영사례로 소개하는 3개 전문대학은 모두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교양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대학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2006년부터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양학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대학교는 2016년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2019학년도에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전체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양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대구보건대학교는 최근에 대학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양교육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구보건대학교의 교양교육 목표는 ‘DHC 6대 핵심역량을 갖춘 휴머니스트 양성’이며, 교양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휴머니스트는 성실한 인품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동시에 따뜻한 봉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대학은 교양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6대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통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명확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전체 졸업 이수학점 대비 기초교양 졸업 이수학점의 비율을 살펴보면 2년제 7.5%, 3년제 8.3%, 4년제 2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대학 전체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방송예술」 산업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창의인재, 현장인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융합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력, 융합능력,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팀워크능력, 감성지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교양교육의 목표에 따라 인재상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학은 모든 학과가 3년 학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졸업이수학점은 110학점이며, 그 가운데 전공교과목은 7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목은 18학점 이상(총 졸업 이수학점의 16.36%) 이수하도록 학사운영 지침(2020.02.29.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교양선택과목은 의사소통(8개 과목), 직업(7개 과목), 인성(5개 과목), 자기개발(11개 과목), 창의융합(8개 과목), 인문학(19개 과목) 영역으로 나누어 59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은 학과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교양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오산대학교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인성을 중시하는 실무중심 명문대학의 비전에 부합되도록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정직한 지성인, 성실한 창조인, 유능한 협력인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정보만을 가진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고등직업전문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인성 및 소양교육과 글로벌 기초역량 강화교육 제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산대학교는 2년제, 3년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전면개편하면서 전체 졸

업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을 확대하였다. 2년제는 10학점(12.5%)에서 12학점(16.7%)으로, 3년제는 14학점(11.7%)에서 16학점(14.8%)로 상향하였다. 대학은 2018학년도에 4차산업혁명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전문대학의 미래는 직업 활동에 필요한 특정한 전문교육만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과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양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에 있음을 인지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국폴리텍II대학은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기술 인력양성’ ‘창의, 도전, 봉사정신을 갖춘 우수 기술인력양성’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기술인재양성’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경제형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목표에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기술인재양성’이 포함됨으로써 교양교육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교육목표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의 학칙에는 교양교과를 전체 학점의 10~20%를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졸업기준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양교과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금형디자인과의 경우 2년제 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04학점이며, 이 가운데 전공교과는 총 92학점, 교양교과는 총 12학점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양교과는 교양필수 4학점 교양선택 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졸업학점 대비 교양교과 졸업학점은 약 11.5%로써 전문대학의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평균값인 10.8%와 비슷한 수준이나, 교양과목 학점 수에 있어서는 12학점으로 전문대학의 평균값인 8학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양졸업이수학점 12학점의 이수시간인 192시간 가운데 80시간(41.7%)이 NCS적용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 3. 교양교육의 해외 운영사례

해외 전문대학과 국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미국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커뮤니티컬리지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단기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보통 2년 이내의 과정으로 개설되며, 개설과정에 따라 자격(Certificate), 디플로마(Diploma), 전문학사(Associate Degree) 등이 부여된다. 캐나다 전문대학은 종합대학의 학문적 목적과는 구별되는 실용학문의 산실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각 도시마다 지역의 전문대학과 산업체는 상호 협동 관계에 있다.

셰리던대학(Sheridan college)의 경우 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Electives)을 이수함으로써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며, 사회 예술, 시민 생활, 사회 및 문화 이해, 개인 이해, 과학 및 기술의 다섯 가지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양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수하는 졸업 자격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선택과목(Open General

Education Courses)과 필수과목(Mandated General Education Course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과목은 특정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기공학기술자(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프로그램의 경우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졸업기준학점이 총 101학점이며, 이 가운데 9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의 선택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회계학(Business accounting)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졸업기준학점이 총 72학점이고 이 가운데 9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필수교과목 1개(Reports & Presentations)와 선택교과목 2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대부분 ‘공립’ 학교라는 점에서 미국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준비, 직업기술교육, 재취업교육, 성인의 계속교육, 보충 및 향상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화이트마운틴대학(White Mountain Community College)은 뉴햄프셔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에 속한 7개의 대학 중 하나로 준학사 학위 및 수료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증진시키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준학사(AS) 및 응용과학준학사(AAS)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전공교육과정은 최소 30학점, 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course)은 영어작문, 과학, 수학, 사회과학, 인문학·미술·외국어, 교양 선택과목 중 1개 이상의 영역에서 최소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점인 60학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학점은 교수가 각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과목에 할당할 수 있다.

과학준학사학위 과정인 자동차 기술 프로그램(automotive technology program)의 경우 2년 4학기 학제로 운영되며, 총 65학점을 이수한다. 커리큘럼에 따르면 첫 번째 학기에 수학(4학점), 두 번째 학기에 대학 작문(4학점)과 전기 및 전자(4학점), 세 번째 학기에 영어(3학점)와 사회과학(3학점),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인문학(3학점), 교양(3학점) 총 24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예술준학사 취득 과정인 교사교육 프로그램(Teacher Education Program)은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총 65(또는 6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 가운데 첫 번째 학기에 대학 작문(4학점)과 인문(3학점, 예술, 음악, 역사, 외국어로 구성), 두 번째 학기에 대학 인문(3학점)과 과학(4학점), 세 번째 학기에 영어(3-4학점)와 인문(3학점),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수학(4학점), 과학(4학점), 사회과학(3학점) 총 37(또는 38)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 4. 기초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역할 및 현황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 차원에서 교양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통합적 운영을 통해 교양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학과 차원을 벗어나 대학 차원에서

이뤄짐으로써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전공에 예속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학과와 전공 간의 경계를 넘어 융·복합 교양교육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교양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9.30%로 조사되었으며,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은 교무위원급인 경우가 30%, 부처장(센터장)급 64%, 팀장급 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반 사립대학이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양대학이나 학부대학과 같은 단과대학 형태의 교육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교양교육 지원기구의 형태로 설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향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성의 확보이다. 전담조직이 그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과가 교양교육 운영에 개입되면 그 성과를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은 학교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의의 위원이 되어 교양교육 관련 의결 내용이 대학교육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교양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교수자 중 전임교수의 비율 확대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 IV.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구성

### 1.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양교육과정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를 기초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업인은 전문직업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이고, 전문대학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보편적인 책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대학 학사편람(2017.8)에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 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 80%~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안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현시점에서는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이 어

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며,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이제라도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구조 또는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 2.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 구성모델 개발 연구의 방향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 구성모델 개발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기준이 될 틀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 교양 교육과정 구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1) 학제별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 (2)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비율 (3) 교양교육목표 영역별 교양 교과목 제시 등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구성모델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참여대학의 지역분포는 서울 8개, 경기·충청도 16개, 경상도 15개, 전라도 10개와 강원 외 6개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 (1) 학제별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

전문대학은 2년제, 3년제, 4년제의 학제를 개별 또는 혼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졸업 이수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 이수학점이 각각 다르게 편성된다. 2018학년도에서 2020학년도 까지 3년간 학제별 평균 교양이수학점, 졸업 이수학점,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대학이 편성한 교양이수, 전공이수, 졸업 이수학점의 분포는 학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교양이수학점을 보면 2년제(6학점~16학점), 3년제(8학점~19학점), 4년제 (13~26학점)가 학제별로 다르게 구성하고 있었다. 이때 교양이수학점의 최저 편성은 6학점 또는 8학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예로 보건대학이라는 환경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위주의 실습교육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양학점 편성이 매우 낮은 것은 특별한 편성이었다. 한편 교양이수학점 편성을 최고로 한 경우는 2년제 16학점, 3년제 19학점, 4년제 26학점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높은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었다. 전문대학 4년제 학제의 교양이수학점이 높은 이유는 4년제로 운영되는 간호학과가 간호 인증평가를 위한 것으로 높은 교양이수학점이 편성되어 있다.

교양이수학점 구성을 교양이수학점 비율 범위로 나누어 보면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다 (표 27) . 즉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 비율을 학제별로 10% 이하, 11%~15%, 16%~20%, 21%~24%, 25% 이상의 5단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2년제는 11%~15% (52.4%)가 가장 많았고, 16%~20% (38.1%)였으며, 교양이수학점 평균은 11.4%이었다. 그러나 10% 이하(9.5%)로 구성한 대학도 일부 있어 여전히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년제는 교양이수학점 평균이 12.7%이었으며 이때 11%~15%(82.2%)가 가장 많았고, 16%~20% (11.8%), 10% 이하 (6%)로 2년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4년제는 21%~24% (53.8%), 16%~20%(30.8%)이고 10% 이하, 25% 이상도 각각 7.7%를 나타냈으며 교양이수학점 평균은 21.2%로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되어 있었다.



## (2)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의 분포변화

2018학년도, 2019학년도에는 대학이 학제별 졸업이수학점 축소방침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미 반영 시기로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 기준이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으로 운영하던 시기였으나, 2019년 다수의 전문대학이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정으로, 2020학년도는 졸업이수학점기준이 2년제 72~75학점, 3년제 108~110학점, 4년제 115~130학점 정도로 축소 적용하였다.

이에 2018학년,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의 학제별 교양이수학점분포(교양이수학점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년제의 경우 2018학년도 6~12학점(7.5~15%), 2019학년도 8~15학점(10~18%)에서 2020학년도 4~12학점(8~16.5%) 정도로 축소되었다. 3년제 학제 역시 2018학년도 10~18학점(8.3~15%), 2019학년도 11~16학점(9.8~14.8%)이었던 것이 2020학년도 8~16학점(7.2~14.8%)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학년도 25~30학점(17.8~21%), 2019학년도 11~35학점(8.3~22.7%), 2020학년도 10~30학점(7.7~21%)로 4년제의 교양이수학점은 약간 증가했으나 교양이수학점비율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 일부 전문대학이 교양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교양학점 및 교양비율을 상향시켰어도, 전반적인 전문대학의 교양학점 즉 교육과정 내의 교양교육은 졸업학점 기준의 축소로 인해 교양학점 뿐만 아니라 교양 이수 비율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학제별 졸업 이수학점기준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전문대학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었던 강사법 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무학사 운영의 어려움과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전문대학의 재정난의 자구책의 한 방법으로 졸업 이수학점기준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전문대학이 2019학년을 전후하여 졸업 이수학점기준 축소와 함께 교양이수학점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 3.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영역 분류 현황

###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설정 현황

2018학년~2019학년도 국공립과 사립전문대학의 목표설정 현황이 80.68%인 결과를 2018학년~2020학년 3년간의 전문대학 교양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2018학년도에는 참여대상 대학 11개교 중 63.6%만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9학년, 2020학년에는 참여대상 대학의 목표설정이 100%에 달하여 3개년 평균이 89%로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 구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교양교육목표의 중요성을 점차 인지하게 된 효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 기술에 나타난 키워드를 활용하여 트렌드 이해 분석법인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 단어구름) 방식으로 2018학년~2020학년 3개년 간의 교양교육목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018학년도에 11개 대학 중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한 대학들이 도출한 교양교육목표의 키워

드로는 인성, 창의, 글로벌기초역량제공, 지적소양, 기초교육, 실무형인재, 진로설계, 창의, 직업교육, 융합형인재, 고등직업전문인 등으로 각 대학의 설립목적 또는 전문대학 인재상에 맞는 교양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2019년도에는 창의, 인성, 지적소양, 전문성, 협력인재 및 국제화능력 등이 크게 표출되고, 그 외에도 공동체발전, 기초역량 및 직업기초교육에 해당되는 다양한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목표에서 ‘창의’ ‘인성’ ‘소양’ 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승준 외(2019년) 연구에서 나타난 교양교육 목표의 대범주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던 “창의,융합,미래사회,문제해결”의 범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문대학 교양교육목표의 방향성이 “인격.도덕.리더십”과 같은 전인교육의 기초교육으로 보는 관점에서 “창의.융합.미래사회,문제해결”과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2020년도에는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 키워드와 함께 ‘역량’ 키워드가 ‘소양교양’, ‘창의적 문제해결’, ‘융합기초교육’ ‘학문다양성’와 미래와 인간의 삶에 관한 키워드인 ‘공동체의식’, ‘협동’ 등이 교양교육의 목표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었다.

## 2) 교양교육과정의 분류방식

대학의 교육과정편성 시 이수분류방식은 대학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획일화할 수는 없으나, 대학별로 분류기준과 정의를 매우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편성분류에 사용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3개년 간 분석하였다.

2018년도에 융합교양, 전공교양, 학생자율교양, 대학인재교양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2019년도에는 대학별로 분류에 다양성이 더욱 늘어났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는 직업기초교양, 직업기초능력, 일반교양, 교양선택, 기초융합교양, 융합인교양, 핵심교양, 학과공통교양 등 대학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수내용의 특성을 담아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소양교양, 실용교육교양, 기초학습교양 등 추구하고자 하는 교양교육목표에 따른 키워드 분류를 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다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중요 키워드인 교양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의 세 가지 분류 키워드도 함께 사용함이 확인되었다.

## (3)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수

대표 키워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생활영어, 일본어, 대학영어, 영어 등의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교양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중요도를 외국어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지도, 직업기초능력, 사회봉사 등을 반드시 전 학생에게 이수하도록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019년도에는 교양필수교과목의 키워드가 크게 취업과 창업, 사회봉사로 분석되는데 이 또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공학점에 편성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대학의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초교양교육의 필요에 따라 글쓰기와 말하기,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의, 사고 교과목과 기초 영어회화 및 언어교육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트렌드는 2020년도에 또 다른 교양필수교과목의 키워드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즉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등과 같은 직업기초능력 교과목과 어학, 사회봉사, 직업윤리, 취창업지도, 3D프린팅 등 교양교육목표 설정에서 보여 주었던 “창의,융합,미래사회, 문제해결”의 범주와 일치하는 교과목들이 배치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10.의 전문대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양교과목을 물은 복수 응답 질문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온 교과목은 글쓰기(의사소통) 84%, 디지털 문해력과 인간과 사회가 동일하게 58%, 영어(외국어) 42%, 문화와 예술 39%로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전문대학이 학점의 한계, 전문성 있는 교양교육 교수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함에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의 충실도를 완성하지 못함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구성을 뒷받침할 교양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 V.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의 후속 작업을 위한 4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초교양교육의 목표가 자유교양 및 직업기초능력을 아우르는 역량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은 방법론적으로 전문대학 특성과 부합되는 핵심역량을 활용한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제별 교양 이수학점 권장 비율, 교과목 충실도를 대학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판정 기준, 기초교양 교육과정 영역 구성의 효과적인 분류방식과 함께 취창업 교과목을 비롯, 전공교양, 전공기초 등 현재 교양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는 전공에 해당되는 영역의 배제 방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교양교육 모델 구축에 따른 운영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보유 여부는 조사에 참여한 대학 기준으로 59.3%에 그치고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속 교원은 평균 6.74명, 직원은 평균 1.78명으로 배치된 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과 지원시설 확보 등 효과적인 교양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의 학과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에서 벗어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양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관리하는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교양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환류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이래로 실시 중인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사업이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교육의 질적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컨설팅 사업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개별 전문대학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진단·보완하도록 유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선행 연구의 검토..... 4
3. 연구 방법..... 11

## II.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1.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13
2. 기초교양교육의 흐름과 변화..... 17
3.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18

## III.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및 사례

1.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현황..... 23
2. 교양교육의 국내 운영 사례..... 27
3. 교양교육의 해외 운영 사례..... 37
4. 기초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역할 및 현황..... 44

## IV.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구성 현황

1. 기초교양 교육과정 구성모델의 필요성..... 48
2. 기초교양 교육과정 구성 현황 분석..... 51
3. 학제 및 계열별 기초교양 교육과정 현황 분석..... 54
4. 기초교양 교육과정 목표 및 영역분류 현황 분석..... 59

## V.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표 목 차

<표 1> 설문문항.....	12
<표 2> 설문조사 결과(5번 문항).....	21
<표 3> 설문조사 결과(6번 문항).....	21
<표 4> 전문대학 교양교육 SWOT 분석표.....	24
<표 5> 기초교양 졸업 이수학점.....	28
<표 6>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교양학부 교육목표 체계.....	29
<표 7>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 핵심역량별 학부 세부 교육목표.....	30
<표 8>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양필수교과목.....	30
<표 9>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양선택 교과목 및 융합형 전공선택 교과목.....	31
<표 10> 졸업기준학점 내 졸업기준교양 (2019학년도, 오산대학교).....	33
<표 11> 총장의 교양교과목 개발 확대를 위한 교양교육 관련 전문자문 실시.....	34
<표 12>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금형디자인과 NCS적용 교양교과 편성표 ....	36
<표 13>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금형디자인과 NCS미적용 교양교과 편성표	36
<표 14> 인문과 과학 과정.....	38
<표 15> 일반 교육 선택과목 이수 기준.....	38
<표 16> 교양교육과정 개설 교과목 목록.....	38
<표 17> 준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이수 학점.....	41
<표 18> 준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학점.....	41
<표 19> 교양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	42
<표 20> 자동차기술 프로그램 커리큘럼.....	43
<표 21> 교사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44
<표 22> 참여대학의 지역분포 (자료 3. 활용).....	52
<표 23> 참여대학의 규모 (자료 3. 활용).....	53
<표 24> 참여대학의 학제별 분포와 운영계열 현황 (자료 3. 활용).....	53
<표 25> 학제별 교양이수, 전공이수, 졸업이수학점 (자료 3. 활용).....	54
<표 26> 설문 조사 결과 (8번 문항).....	55
<표 27> 설문 조사 결과 (9번 문항).....	55
<표 28> 연도별 교양이수학점의 변화 (자료 3 활용).....	56
<표 29>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변화 (자료 2 활용).....	57
<표 30>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자료 2. 활용).....	59

<표 31> 전문대학 교양교육목표 키워드 연도별 빈도 (자료 2 활용).....	60
<표 3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키워드 연도별 분석 (자료 2 활용)....	62
<표 33> 전문대학 교양필수교과목 키워드 연도별 분석 (자료 2 활용).....	63
<표 34>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정한 교육기초교육의 목표와 교양과정 내의 담당영역...	65
<표 35>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정리 (2018학년도 기준, n=11).....	66
<표 36>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정리 (2019학년도 기준, n=14).....	67
<표 37>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정리 (2020학년도 기준, n=13).....	68
<표 38> 교양교육목표 기준 개설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특성 (자료 2 활용).....	69
<표 39> 설문 조사 결과(10번 문항).....	71
<표 40> 설문 조사 결과(13번 문항).....	71

## 그림 목 차

<그림 1> 오산대학교 교육목표.....	33
<그림 2>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의 분포변화.....	58
<그림 3> 연도별 교양교육목표(목표설정).....	60
<그림 4> 연도별 교양교육 과정(교양분류).....	62
<그림 5> 연도별 교양교육 과정(필수교양 교과목).....	64
<그림 6> 교과목 충실도(교양교육목표 주제 교과목).....	69
<그림 7> 교과목 충실도(사회적, 지적요구 교과목).....	70

## 부 록

<부록 1>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설문조사 문항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온라인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의 급속한 전환과 함께 교육의 목적, 방법, 평가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역량을 두루 갖추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교육방식은 20세기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우,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이 일고 있으며, 특히 일반대학과 함께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는 기존의 능력 중심의 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sup>1)</sup> 더욱이 2019년 출범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3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전체 교육시스템의 대변혁을 표방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전문대학은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에 기반한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핵심역량을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2)</sup>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대하는 전문성의 속성, 곧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sup>3)</sup>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표방하면서 전공 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직업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교양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방향성을 상실한 채 직업교육의 하위 영역처럼 인식되어 운영되었고, 재정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소홀히 운영된 측면이 있다.

특히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과 함께 시작된 NCS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도입 이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대학을 상대로 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 및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평가지표에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이 포함되면서 10개의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한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이 부각되었기

1) 김기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2) 주현재 외 2인, 「4Cs 역량 증진을 위한 코딩 교양 교과목 개발」, 『문화와 융합』 41-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3)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핵심역량, 교육만족도, 긍정심리자본, 고용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때문이다.

이 같은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은 전문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업기초능력은 곧 교양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 교양과목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본래 교양교육은 직업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다<sup>4)</sup>. 따라서 직업기초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교양교육 운영은 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전문직업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학에는 기초교양 교육의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sup>5)</sup>. 따라서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전통적인 교양(인문학, 자연학)영역 사이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이제라도 균형을 갖고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은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2019년 실시된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문대학 중 약 80%의 대학만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20%에 가까운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문대학에서는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학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교양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수방식도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문제 등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개선할 과제 역시 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업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전문대학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설정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개별 대학들이 교양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곧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표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사업’을 시행한 이래로, 현재 40개가 넘는 컨설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질 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의 부재로 인해 컨설팅이 컨설팅 위원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컨설팅 위원 각자의 주관성이 짙은 컨설팅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본질에 부합되면서 직업교육기관의 특색을 살린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비단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과 더불어 핵심역량 교육이 강조되면서 지금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전에 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지표에서 교양교육이 포함되면서 이제 기초교양교육의 체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전문대학은 교양교육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4)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www.konige.kr)

5) 최윤경,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교양교육연구』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6) 윤승준 외 5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따라서 우선 기초교양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대학들이 이를 수용·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기초교양교육을 개발하는 일은 전문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sup>7)</sup> 전문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인식조사 등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연구단계를 거쳐 전문대학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긴 호흡으로 이뤄져야 할 기초교양교육 모델 개발의 첫걸음이며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수행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중 첫 단계로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은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대학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실제 활용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아직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고, 교양교육을 위한 인적 토대 및 물적 토대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선부른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의 제시는 자칫 불확실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오히려 전문대학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승준 외 5인(2019)은 정부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양교육 로드맵을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교양교육과정 구성, 내용, 운영 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기초자료 수집과 운영사례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교양교육의 미래 방향을 명확히 하는 사전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문제점 파악에 초점을 두었고, 교양교육 담당 부서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양교육의 현황 및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전문대학에 비해 교양교육의 역사가 길고 체계적으로 운영 중인 일반대학의 경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개발한 교양교육 표준안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양교육 표준안은 개별 대학이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 지침으

7)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2002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었다. 이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9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정책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20년에는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등 3개 협의회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 강경중·이건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22, 한국직업교육학회, 2003. ; 윤승준 외 5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 이종엽 외 4인,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전공심화운영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2020. 참조.

8)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윤승준 외 5인, 2019)에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과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모델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준안은 한국교양교육학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 탄탄한 연구조직의 바탕 위에서 총 5회에 걸친 공동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sup>9)</sup> 전문대학의 표준안 역시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내외 기초교양 운영사례 및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교양교육 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 운영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기초교양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내외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탐색한 후, 대학의 교양교육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과정 현황 분석 및 앞으로의 기초교양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른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98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정(1998.3.1.)과 함께 전문대학의 교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심하게 위축되고 왜곡되었다. 이와 같은 자율화 조치에 따라 전문대학은 전공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교양교육을 도외시하게 된 것이다. 교양교육의 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율화 조치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기본 터전을 황폐화시켰다.<sup>10)</sup> 그리고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과 함께 도입된 NCS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또 한 차례 변질시켰다. 그동안 이루어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가운데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승한(1992)은 일찍이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모형 개발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sup>11)</sup> 이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개념을 엘리트 교육, 대중적 교육, 자유교육, 일반적 교육, 인간성 교육, 전공기초교육, 공통적 사고교육 등으로 나누고, 외국의 전문대학과 같이 다양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준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교양과’ 또는 ‘교양과정부’와 같은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남 및 부산 지역 전문대학의 교수와 학생, 기업인 총 8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자유교육과 공통적 사고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양 이수 학점은 전체 졸업 학점의 20~30%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자율화 조치 이전의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

9)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교양교육 표준안」 참조 ([http://konige.kr/sub02\\_08.php](http://konige.kr/sub02_08.php))

10) 이와 관련한 내용은 최미숙이 간명하게 정리해 놓은 바 있다.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665-667쪽.

11) 문승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은 남성희(2003)에 의해서도 제출되었다.<sup>12)</sup> 이 연구는 45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의 학점 배분 현황, 교양 과목의 영역별 구성,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전공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은 교양교육을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으로 이해하거나 전문직업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적 교육으로 이해해 온 탓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전문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이 서로 상반된 교육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고 전문성과 인간적 삶을 통합하는 실천 중심의 교양교육을 시행하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내용영역을 「삶과 직업의 통합적 이해」, 「세계화와 전통문화의 이해」, 「생태환경과 과학기술의 상보적 이해」, 「기술·정보 지식의 종합적 사고」, 「심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조성」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활동과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강경중·이건남(2003)<sup>13)</sup>은 2002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의 전문대학 15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양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분반 규모가 크고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으며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존의 교양교육이 전문대학 학생들의 교양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직업기초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교양교육의 성과를 전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담당 교수들이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양 교과목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은실·이로미(2010)는 경인여자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는데,<sup>14)</sup> 이들은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현재(2013)는 교양교육 전담기구 설치 현황, 교양학점 이수기준과 교양교육과정 편성 현황,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등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보고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sup>15)</sup>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각 대학마다 교양학점 이수조건이 각기 다르고 편차가 크다는 점,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교양교육과정이

12)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3) 강경중·이건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22, 한국 직업교육학회, 2003.

14) 전은실·이로미,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논문집』 11-1, 한국고등직업 교육학회, 2010.

15)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일반대학에 비하여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었으며, 이밖에도 교양교육 체계화를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목표 확립, 다양한 교양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 교양 담당 전임교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지원·정원희(2013)는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는 있으나 창의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식 전수 중심의 교육에서 인성과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하였다.<sup>16)</sup>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들은 대림대학교의 교양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역량 중심의 교양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권영심(2013)은 전문대학이 전문기술과 함께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양을 두루 갖춘 전문직업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고등교육법상 학점 이수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고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학점 이수조건과 기준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 교양교육의 목적 아래 통합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개설된 과목들을 교양필수 및 선택 혼합형 또는 모든 과목 선택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교양 이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만족한 후에는 대학마다 각 대학의 정신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이 시기까지의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성 교육이나 역량 중심 교육 등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도입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NCS 교육을 교양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심을 이루었다. 물론 NCS 교육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역량 중심의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양영근·정원희(2014, 2015)는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정의 불일치, 교육훈련과 자격이 따로따로 노는 현실,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하여 대림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안과 교양 교과목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sup>18)</sup> 이들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을 인성 중심의 교과 운영,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 운영, 기초과목의 교차 수강, 융복합 교과운영 등 4가지로 설정하고,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의 교양교육과정이 교양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송명진(2015)은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함과 아울러 글로벌

16) 이지원·정원희, 「(글로벌시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방향 탐색」, 2013년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3.

17) 권영심, 「명지전문대학교의 교양교육 운영사례」, 2013년 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3.

18)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교양교과목 개편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 『교양교육연구』 9-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5.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과 교양까지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교양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sup>19)</sup> 그러면서도 직업기초능력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제도와 연계된 교수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요약적 읽기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창의적 읽기 능력 및 글의 구성에 대한 기초적 이해, 즉 문서작성 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밝히면서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제도와 연계된 교양국어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제고 및 성취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하경숙(2015)은 대림대학교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sup>20)</sup> 그에 따르면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습득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의의 목적과 학습 방향의 재설정, 표준화된 강의를 위한 교재의 마련, 첨삭 지도를 위한 분반 인원의 축소, 검증된 우수 교수진의 확보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학 당국의 지원과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허영주(2016)는 고졸 또는 대졸 신규 인력이 입사 후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여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도입되었다고 진단하였다.<sup>21)</sup>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과 취업 후 적응력 향상 및 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입된 NCS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직업기초능력을 교양교육과정에 도입할 경우 나타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NCS 교육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각 대학별 교육목적과 인재상에 맞도록 선별적으로 활용하거나 재해석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현재·김현우(2016)는 전문대학에 NCS 기반 교육과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과정 개편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은 현장 수요에 맞춘 NCS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울 소재 S 전문대학교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활용한 일회성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토대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22)</sup>

최윤경(2017)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교양 교과목을 통한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sup>23)</sup> 이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인간>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운영한 교수

19) 송명진, 「국어교육과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제도-전문대학의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20) 하경숙, 「대림대학교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발전방안」, 『대학작문』 10,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21) 허영주, 「NCS 직업기초능력의 교양교육과정 도입 전략 탐색」, 『교양교육연구』 10-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22) 주현재·김현우, 「전문대학에서의 NCS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S 보건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8-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23) 최윤경,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교양교육연구』 11-3, 한국교양

자 13명과 수강생 1,460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등 직업기초능력의 향상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미숙(2017)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전공교육 및 NCS 중심의 전문대학 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원광보건전문대학 구성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sup>24)</sup>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다양한 학문분야 간 통합적 융합교육, 사회적 실천과 연계한 유기적 교육, 교양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K-MOOC 활용 교육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현희(2017)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 4차 산업혁명은 직업교육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변화 필요성과 함께 교양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25)</sup> 그러한 관점에서 폴리텍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검토한 이 연구는 폴리텍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다기능근로자의 일반 기초능력의 함양에 주력해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격의 형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규범과 가치를 길러주는 일반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기초필수교양으로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특히 읽기 쓰기에 집중할 것과 직업기초능력을 내실화할 것,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휘형(2017, 2018)은 김포대학 1학년 학생 및 졸업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과 교양교육, 취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sup>26)</sup> 특히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직업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청능력, 도표분석능력, 사고력, 자아인식능력, 예산관리능력, 협상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근로윤리 등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주는 하위능력의 함양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직업기초능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문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배수현(2018)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따라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Y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NCS 교육을 교양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sup>27)</sup>

김은준(2019)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

---

교육학회, 2017.

24)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5) 강현희, 「직업교육에서의 교양교육 강화 연구: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6)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취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27) 배수현, 「NCS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Y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14-4,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2018.



면서 실용 중심의 교과 외에도 자기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보편적 교양교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성찰적 글쓰기가 그와 같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sup>28)</sup>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에는 실무 위주의 교과목과 더불어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게 하는 보편적 교양 교과목도 필요함을 입증한 실질적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정철민(2019)은 ‘직업인 양성’으로 국한하여 온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국한하여 온 전문대학 교육의 현실이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보다 덜 중요하거나 문화센터 수준의 강좌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직업기초능력 교육으로 그 영역을 협소하게 규정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실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인적 성장을 지향해야 하며, 전공교육과 함께 교양교육은 전문대학 교육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준원(2019)은 138개 전문대학 가운데 WCC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이수학점과 교양교육 전담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하고, 교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0)</sup> 그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10% 미만으로 일반대학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도 조사대상 17개 대학 중 7개에 불과하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하였다.

윤승준 외 5인(2019)은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②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내용, ③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였다.<sup>31)</sup> 특히 88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 보고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주현재 외 2인(2019)은 4Cs(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가 미래 인재의 핵심가치 역량으로 중요하게 부상함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도 기존의 NCS 기반의 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4Cs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이들은 서울 소재 S 보건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딩 교육 결과, 학습자의 4Cs 역량이 전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4Cs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수업 개발을 통하여 미래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8) 김은준, 「성찰적 글쓰기가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29) 정철민,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철학』 73, 한국교육철학회, 2019.

30)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6.8.

31) 윤승준 외 5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32) 주현재 외 2인, 「4Cs 역량 증진을 위한 코딩 교양 교과목 개발」, 『문화와융합』 41-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이수현(2020)은 NCS 직업기초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D대학의 사례를 통해 전문대학의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sup>33)</sup> 이 연구는 교내·외 교육 환경과 역량 분석부터 교양교육 목표와 정책의 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양교육 영역의 설정, 교과목 도출 등 구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기구와 인력, 교양이수학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전문대학의 한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종엽 외 4인(2020)은 한국 전문대학 교무입학처장협의회·전공심화운영협의회·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 교양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sup>34)</sup> 이 연구는 4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교양교육 혁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최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대두함에 따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일반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안」을 참고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모델을 마련해 보고자 한 연구로,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 지향, 전문대학의 지향성·정체성 강화, 전문대학의 차별성 및 경쟁력 제고 방향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부 수정·보완하여 소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sup>35)</sup>

이밖에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한 이재준(2018)의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sup>36)</sup>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최근 현황 조사를 비롯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14년 NCS 교육이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후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양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 기반 교육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문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 일자리 감소,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창의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3) 이수현,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2,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34) 이종엽 외 4인,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전공심화운영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2020.

35) 이운지, 「전문대학 교양교육 모델 제안을 위한 운영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 『교양학연구』 12,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0.

36) 이재준,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통합적 접근 가능성」, 『교육문화연구』 24-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 3. 연구 방법

#### (1) 연구의 방법과 일정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본 연구는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및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국내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전문대학 교양교육 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로 문헌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및 교양교육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기초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현황을 탐색하면서 국내 전문대학에서의 운영 사례 및 해외 직업교육에서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초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역할 및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정리하였다.

셋째로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 부서장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현황 및 기초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사업 자료를 토대로 계열 및 학제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현 상황에서의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진행될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 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문헌 연구

- 기초교양교육 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 문헌 분석: 관련 논문, 정책 보고서, 학사편람 등 분석
- 조사 기간: 6월 15일 ~ 9월 8일

#### □ 연구 일정

- 기초 조사: 9월 9일 ~ 9월 14일
- 설문 조사지  
작성: 9월 15일 ~ 9월 20일  
검토: 9월 21일 ~ 9월 24일
- 중간 보고회: 9월 25일

- 설문 조사 진행: 1차 9월 8일 ~ 9월 24일  
2차 10월 8일 ~ 10월 16일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0월 19일 ~ 30일
-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참여 대학의 교육과정 부분 분석
- 결과 보고회: 12월 7일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종료: 12월 31일

(2)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부서장 대상 설문 문항은 대학 일반정보,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과정 개발, 교양교육과정 운영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설문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1> 설문문항

항목	설문문항
대학 일반정보	재학생 규모
	대학 소재지
	교양 담당부서
	학과 분류(계열)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기존의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지향해야할 목표
교양교육과정 개발	교양 졸업기준학점
	교양 졸업기준학점의 적절성
	수업연한별 교양 졸업기준학점 비율의 적절성
	전문대학에서 꼭 필요한 교양 교과목
교양교육과정 운영	교양교육과정 운영 기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방법(교과목/이수학점 등)에 대한 바람직한 결정 방식
	교양교육과정을 위한 우선적 해결 사항
	교양교육과 관련한 아이디어 및 건의 사항

## II.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 1.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문화를 뜻하는 영어 culture, 독일어 Kultur의 어원은 라틴어 cultura로, cultura는 ‘밭을 갈아 농작물을 재배하고 경작함, 일을 하여 농작물을 수확함’이라는 뜻을 가진 colere의 동명사형이다. 이 말은 animi culti(경작된 영혼), cultura animi(영혼의 경작)이라는 말에서 보듯, ‘영혼, 정신을 경작함, 갈고 닦음’의 뜻으로도 쓰인다.<sup>37)</sup> culture는 교양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교양교육을 ‘경작된 정신의 수확물’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지도적 시민들이 지녀야 할 지적·정서적·도덕적 자질, 능력, 덕성을 뜻한다고 정의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원을 기초로 한 것이다.<sup>38)</sup>

‘교양’이라는 말은 19세기 후반 서양 문물을 수용하던 일본의 식자들이 독일어 Bildung의 번역어로 만들어낸 것이다. 독일어 Bildung은 본래 ‘나무를 쪼거나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에서 보면, 이 말은 ‘신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에 새겨 넣는 것’, 인문주의적 전통에서는 ‘신의 인식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본래 어리석은 존재(homo insipiens)인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사유하는 존재(homo sapiens)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주체적 자아의 형성’, ‘인격적 완성’이라는 교양의 근대적 개념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훔볼트(K. W. Humboldt, 1767~1835)에 와서 형성된다. 칸트는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스스로를 감당하고 지키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자신 내면에 가치를 갖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으로서 유의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0)</sup>

독일의 근대적 교육 개념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실현한 훔볼트는 교양이란 단적으로 인간의 인간다움 그 자체만을 위한 주체적 자아의 형성이라고 하였다.

*교육(Bildung), 진리, 도덕은 인간 정신의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 그 정신은 개개인을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들이 스스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은 세상이 전하는 수많은 것과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을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은 자기 감성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야 하며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이용해 흡수한 것들을 다시 반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기 본성과 자연 사이의 충돌*

37)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19~20.

38)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http://konige.kr/sub02\\_08.php](http://konige.kr/sub02_08.php)

39)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20~21.

40) 피히테(J. G. Fichte, 1726~1814)는 교양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창조하는 정신의 자기형성이요, 자아란 자아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22~23.

과 화학반응을 만들어내야 한다.41)

교양에는 이와 같은 개인의 자기형성 과정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얻어진 상태도 포함된다. 거기에는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형성의 이상이 있게 마련이고, 이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반성적 태도와 타자 및 세계에 대한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훔볼트는 교양의 보편적 성격과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서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단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는 지식이 있으며, 또 그 이상으로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심성과 성품의 교양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특정의 직업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하고 모범적이고 각자의 신분에 맞게 계몽된 인간이자 시민이어야 비로소 훌륭한 기술자고 훌륭한 상인이고 훌륭한 군인이고 훌륭한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학교 교육이 시행되면, 차후에 특정의 직업능력도 쉽게 갖출 수 있으며, 살다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자유도 얻게 된다.42)

근대 이후에는 교양교육을 ‘직업 활동의 세계 및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잘 부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교양에 새로운 교육 영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양도 근대적 민주사회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관점, 실생활이 추구하는 시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유용성과 이익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교양은 본질적으로 직업교육과 달리 경제적 목적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양은 영어로 ‘liberal arts’라고도 하는데, 이때 ‘liberal’이라는 말은 지성을 전반적으로 확충하고 다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양교육을 이미 정해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장을 기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liberal arts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43)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 1746~1827)는 일찍이 “인간 본성의 내적 능력을 지혜로 키워 올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교양교육의 일반적 목표다. 특별한 상황이나 처지에서 이 능력과 지혜를 허용하고 연습하고 활용하는 것은 직업교육이거나 신분교육이다. 이들은 인간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의 하위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교양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44) 이와 같은 언급은 보편적 일반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르더(J. G. von Herder, 1744~1803)는 이와 같은 교양교육의 가치를 일러 “잘 버린 칼로는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45)

41) Wilhelm von Humboldt, “Theory of Bildung“, Teaching As A Reflective Practice: The German Didaktik Tradition, edited by Ian Westbury, Stefan Hopmann, Kurt Riquarts. ; <https://ko.wikipedia.org/wiki/%EB%B9%8C%EB%91%A5>.

42) Wilhelm von Humboldt, Rechenschaftsbericht an den König, 1809.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23~24.에서 재인용.

43)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철학사, 2011, p.25~27.

44)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25.에서 재인용.

교양교육의 역사를 살펴 볼 때, 교양교육의 개념에는 자유교육의 이념과 일반교육의 이념이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행해지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으로, 본래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와는 신분이 다른 자유시민이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었다. 그 내용은 이른바 3학(trivium) 4과(quadrivium)라고 하는 자유학예(artes liberales)로, 중세를 거쳐 고등교육의 보편적 내용으로 정착되었다.<sup>46)</sup> 자유교육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자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능동적·주체적 인격의 도야를 지향한다. 인간을 형성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미정형의 자유인으로 전제하고, 비판적 사유를 통해 미정형의 자신을 형성시켜 나가도록 한 것이다.<sup>47)</sup>

상층부 귀족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자유교육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계층의 교육 수요를 포괄하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루어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연과학의 발달은 교육의 대상과 내용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정 계급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3학 4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sup>48)</sup> 능동적·주체적 인격의 도야,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는 실상 인간, 사회, 자연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반교육은 특정 분야의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화된 특정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는 달리, 어떤 전문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든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특정 직업인이기에 앞서 지·정·의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케 해주는 기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 직업인이기에 앞서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며, 그의 삶에는 전문인으로서의 삶에 등장하지 않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가치의 영역이 주어질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일반적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교육은 이를 위하여 자유학예교육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45) 헤르더의 이와 같은 말은 전공교육의 성과가 최대한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도 교양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유사회에서의 교양교육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HARVARD UNIVERSITY PRESS, 1945)의 다음과 같은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교양과 전공교육은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며 또 경쟁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교양교육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적절한 토대를 제공해야 할 뿐더러, 전공이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배경도 제공해야 한다. 전공은 보다 넓은 보편적 맥락에서만 그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맥락과의 유기적 관계를 끊어서도 안 된다. 교양교육은 통합된 생명체(organism) 전체이고, 전공교육은 전체 내에서만 그 특수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장기(organ)이다.”

46) 한편 십자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학이나 상업, 법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학 또는 법학을 교육하는 단과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의학이나 법학 중심의 단과대학들에서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거쳐야 할 교육으로 교양교육을 간주하였다. 김종건, 「자유교과, 『교육학대백과사전 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p.2218. ;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12.

47)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28-29.

48)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13-16.

20세기 들어 하버드 위원회(Harvard Committee)에서는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직업이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고등교육에서도 전공이 세분화하고 기술교육이 강화되자,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성을 옹호하면서 교양교육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의 함양은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sup>49)</sup>

교양과 교양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양 및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을 참고로 하여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을 위하여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교육은 전문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에는 첫째 문헌 자료는 물론 수식과 도표, 각종 디지털 정보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둘째 특정 사건이나 상황, 또는 대상이나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셋째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 또한 논거를 갖추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넷째 대학에서의 학업 이수에 필요한 외국어 및 기초수학과학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인간관과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나를 포함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인간의 삶과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인간관을 정립하는 교육은 교양교육의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의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국가, 세계, 자연과 우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나아가 인간과 세계와의 복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양교육의 세 번째 주제는 현재의 인간 존재가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고 추구하도록 노력하게 할 가치관 교육이 될 것이다.

최근 고등교육의 이슈로 등장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competence)은 구체적인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내적 속성들을 말한다.<sup>50)</sup>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을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49) 나아가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대하고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혼란스럽게 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정(assumption)에 대한 질문, 자기반성 유도, 비판적·분석적 사고의 교수, 역사적·문화적 배경, 학생들의 이해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노출시키기 등을 시도한다. Harvard Committee,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45. ; 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 Report of the Task Force in General Education, 2007. ; 조무남, 「자유교과, 『교육학대백과사전 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p.2228. ;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16-17. ; 정철민, 「대학 교양교육의 재해석: 하버드 교양교육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9-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5, p.157.

50) 서영인, 「고등교육 평가체제 선진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 김대중·김소영,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과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핵심역량교육연구』 2-1, 2017, p.35에서 재인용.



로 재정의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 핵심역량을 업무수행능력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받아들여 사용하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였다.<sup>51)</sup>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한적 의미로 왜곡·사용되고 있는 역량 개념의 범주를 확대하여 기술은 물론 지식과 가치·태도를 두루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량 개념의 범주를 이처럼 확대·적용할 경우,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교양 및 교양교육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흐름과 변화

정부가 1998년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전문대학의 교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장치는 교양교육의 양과 질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양교육을 위축시키고 왜곡하였다.<sup>52)</sup> 전문대학의 교육목표가 주로 각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 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실습을 중시한 전공 교육이 강조된 측면이 강하고, 교양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을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문대학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이 도입되면서부터다. NCS에는 공통적으로 직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총 10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을 비롯한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과 함께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물론 NCS 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도입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교양교육과정 체제, 곧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등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낳았다. 하지만 교양교육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전문대학 구성원 간 논의와 협의가 생략된 채 정부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체제를 도입한 일은 결국 교양교육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직업인 양성과 대학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자유교양인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초교양 교육과정 체제가 필요하다.

51) 최상덕, 「역량기반교육의 의미와 대학 역량 교육의 방향」, 202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고등교육정책포럼, 2020.11.27.

52)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665-667.

### 3. 기초교양교육의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으로 삶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시공 체험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가상공간, 가상현실의 등장과 함께 종래 인간 생존의 기본 요건이었던 시간적 순차성과 공간적 배타성이 무력화되면서 여러 가지 상이한 욕구들의 동시적 충족에 대한 기대가 일상화되었다. 상이한 욕구의 동시적 충족에 대한 기대는 기술의 융합, 사유와 감각의 융합, 사회 조직의 탈중심화, 삶의 유목화를 가져왔다.<sup>53)</sup> 이처럼 삶의 지평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지적·정신적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양교육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전문대학에서는 그동안 교양교육을 전공교육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전공직업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적 교육이나 예비교육 정도로 인식해 왔고,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교양교육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 그러나 미래 일자리 변화로 인해 누구나 최소한 세 번 이상의 직업 전환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문대학의 교육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 또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sup>54)</sup> 특히 교양교육의 핵심이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 형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일반적 규범 및 가치의 실현에 있다고 한다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라고 해서 고등교육 일반의 교양교육과 달라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를 기초로,<sup>55)</sup>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집중되어 왔다.<sup>56)</sup> 그러나 전문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업인은 전문직업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이고, 전문대학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보편적인 책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대학은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양을 함께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sup>57)</sup>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전

53)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33~42.

54) 권준원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3년 이상 고용 유지율이 28.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전공 직무교육 중심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주현재, 정철민, 최미숙 등은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이 직업기초능력(NCS)과 관련한 교과목으로만 편성,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교양교육 운영 현황과 교수요원 인식도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 정철민, 「대학 교양교육의 재해석」, 『교육사상연구』 29-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5. ;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55)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7조.

56)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수업연한상의 제한점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공교육보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한다. 교양교육의 정신을 추구하지 않는 전문교육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교육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41~43.

57)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112. 정철민은 이 점이 전문대학을 직업훈련학교와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철민, 「전문

환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 세대의 65%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는 WEF의 예측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기술이 우리 사회에 속속 적용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앞당기고 있다.<sup>58)</sup> 또한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하여 OECD는 개인과 사회의 성공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이루기 위해 역량 교육의 틀을 새롭게 설정하고 교육을 혁신하고자 추진하고 있다.<sup>59)</sup>

이와 같은 변화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전공교육, 직업능력교육에 집중해 온 전문대학의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짧은 수업 연한과 작은 규모, 취약한 재정 형편 등 전문대학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과 연마를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새로운 직업기술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전문인을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변화를 창출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기술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즉 인간다운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 기초교양교육이 필요한 것이다.<sup>60)</sup>

그렇다면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2019년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직업기초능력’이나 ‘현장실무능력’, ‘직무능력’, ‘NCS’를 ‘인격, 인성, 참사람’과 함께 교양교육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와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이 나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부서장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온 NCS 기반 교육과정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현재의 NCS 기반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그동안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의 함양과 ‘인격, 인성, 참사람’의 함양 또는 육성을 목표로 해 왔다.<sup>61)</sup> 일견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또는 목표로 양립해 왔다는 사실은 전문대학의

대학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철학』 73, 한국교육철학회, 2019, p.143.

58) “By one popular estimate 65% of children entering primary schools today will ultimately work in new job types and functions that currently don’t yet exist. Technological trend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reate many new cross-functional roles for which employees will need both technical and social and analytical skills. Most existing education systems at all levels provide highly siloed training and continue a number of 20th century practices that are hindering progress on today’s talent and labour market issues.” WEF,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6.

59) OECD,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2018. ; 이상은·소경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한국교육과정학회, 2019.

60)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113~114.

61) 윤승준 외 5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p.79~82.

교양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대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기초교양교육 차원에서는 ‘기초, 교양, 사회, 교육, 창의, 인성, 지식, 공동체, 소양, 사고, 소통’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sup>62)</sup>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sup>63)</sup>

- 1)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 2)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 3)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 4) 융합적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 5)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 6) 심미적 공감능력 함양

보편적 문해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인간관과 세계관, 가치관, 공동체 의식, 시민정신 등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이는 전공교육이 아닌 기초교양교육에서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1) 창의적 사고 역량, 2) 지식정보 처리 역량, 3) 의사소통 역량, 4) 공동체 역량, 5) 자기관리 역량, 6) 심미적 감성 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기초능력은 1) 문제해결능력, 2) 융복합적 사고 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자기계발능력, 5) 정보능력, 6) 글로벌 트렌드 학습능력, 7) 대인관계능력, 8) 자원관리능력, 9) 수리능력, 10) 공감과 배려능력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4)</sup> 그러면서도 교양교육은 미래 직무수행능력 강화와 관련하여 기술 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인간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성찰 능력을 갖추게 하며, 시민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글로벌 언어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강화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토대 역량을 갖추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었다.<sup>65)</sup>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 부서장 중 기존의 직

62) 이종엽 외 4인,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한국전문대학교 무입학처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전공심화운영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2020, p.23.

63)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기초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64) 원만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p.101-123.

65) 손동현 교수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를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1)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사고 능력의 함양, 2)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의 함양, 3) 세분화된 분야들의 의상을 전체 속에서 조망하고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의 함양, 4) 합리적 사고를 넘어 감성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5)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 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함양.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p.42~46.

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일부 있다(55%)고 응답했지만, 직업기초 중심의 교양교육으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74%)고 응답하였다.

<표 2> 설문조사 결과(5번 문항)

5. 기존의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비율
①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기여하였다.	17	55%
②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15	48%
③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유효하다.	6	19%
④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23	74%

<표 3> 설문조사 결과(6번 문항)

6.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빈도	비율
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	24	77%
② 직업교육, 실천적 실무교육	8	26%
③ 전공교육을 지원하는 전공기초교육	6	19%
④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식 교육, 일반적 역량 교육	24	77%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균형 잡힌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과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식 교육, 일반적 역량 교육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목표는 전문대학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양교육 본래의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재 전문대학의 NCS 기반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의 역량 개념은 단순히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만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이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기초교양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교양교육이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또한 기초교양교육은 전문대학교육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가 기대하는 인재, 곧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초교양교육의 목적을 참고로 개별 대학에 맞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Ⅲ.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및 사례

#### 1.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현황

##### (1) 기본 현황

전문대학은 현재 134개로 2년-4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DB연계 취업통계(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71.1%, 진학률은 5.8%로 나타나 학사편입 등 진학 보다는 취업에 특화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2월 26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교양과목이 법정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정 기준의 교양교과목을 개설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전문대학의 교과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게 되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제도는 대학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6)</sup>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직업교육 강화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전공교육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와 같이 상당수의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sup>67)</sup>

또한 2014년 무렵부터 NCS기반의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에서 시작되면서 NCS직업기초교과목<sup>68)</sup>이 기초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되었는데, 직업교육 중심의 NCS기반의 교육과정에서 파생되어 내용과 운영 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사회와 세계, 그리고 진리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을 함양시키고자<sup>69)</sup> 하는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교양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대학에 NCS직업기초교과목이 교양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기존의 기초교양교과목이 밀려나게 되고 전문대학에서 기초교양교육이 보다 더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 와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확산되면서 NCS기반의 교육과정이 약화된 것과 2021년 대학

66)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663-702.

67)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p.400-407.

68)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으로 현재 10개 분야에 3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9)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교양교육 운영현황과 교수요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315-342.

기본역량편람 진단지표 중에 ‘교육과정 운영’ (18점)에 직업 ‘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6점)이 포함된 것, 그리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이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기본 현황을 SWOT 분석기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 전문대학 교양교육 SWOT 분석표

S(Strength)	W(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장들의 교양교육 확대에 대한 공감 형성</li> <li>•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대 구성원의 인식 제고</li> <li>•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대학 수 확대</li> <li>•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대학 수 확대</li> <li>• 전문대학 교양컨설팅 사업 참여 대학 증가</li> <li>• 융합 학제 도입 등 학사체제의 유연화로 인한 교육과정 개발·개편 요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전문대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li> <li>• 상당수 대학에 있어서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이 불확실함</li> <li>• 교양 전담 조직 설치 대학 수 적음</li> <li>• 학과 중심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li> <li>• 교양교육 전담 전임교원이 부족하고 강사 의존도가 높음</li> <li>• 전체 졸업학점에서 교양 졸업이수학점의 비율이 낮음</li> <li>•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위주의 교양과목 구성</li> <li>• 학술성이 담보되지 않은 교양 교과목의 비율이 높음</li> <li>• 수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증가</li> </ul>
O(Opportunities)	T(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li> <li>• 소통능력과 협업능력에 대한 기업의 요구 증가</li> <li>•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li> <li>• 대학평가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편견</li> <li>•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 간 경쟁 심화</li> <li>• 폴리텍 등 타 직업교육기관의 등장으로 인한 전문대학의 생존 위협</li> <li>• 강사법 시행에 따른 전임교원 의존도 심화</li> </ul>

SWOT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교양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입학자원 감소 등에서 여러 약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대학 지도부 및 교원들의 교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기본역량진단을 비롯한 정부 주도 평가에서 교양교육을 비중 있게 포함시키는 등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내·외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2) 교양교육의 목적/목표<sup>70)</sup>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교는 교육체제가 상이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일반대학의 교양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고, 교육목적이나 목표 또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sup>71)</sup>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2019)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한 대학은 71개교로, 전체의 80.68%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전문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 주요 키워드는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24개교)과 ‘인격, 인성, 참사람’ (24개교)를 비롯하여, ‘기본능력,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18개교), ‘창의, 창의성, 창조’ (16개교),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직업인’ (13개교),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13개교), ‘융합, 융복합, 통섭’, ‘소통,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10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 주요 키워드 조사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과 ‘인격, 인성, 참사람’ 이 24개교의 교양교육의 목표에 포함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다소 상반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각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 시키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과 함께 직업교육을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된 영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문대학의 강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2019학년도 현재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2년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교양학점은 2년제 8.00학점(10.8%), 3년제 14.89학점(13.4%), 4년제 20.84학점(16.0%)으로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평균 13.8%를 차지한다.

교양교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개설과목 수는 평균 73.30개, 개설강좌 수는 평균 287.16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개설 교양교과목은 평균 18.29개이다.

한편 비교과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개설된 프로그램 유형은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교양교육의 운영 및 질 관리

70) 기초교양교육의 현황 중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교양교육의 운영 질 관리, 교양교육의 문제점 부분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윤승준 외 5인, 2019)를 중심으로 재정리함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36.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1.2%, 비전임교원 52.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2018학년도 대비하여 살펴보면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두 증가하였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초빙, 겸임, 산학중점 교원은 인원수의 증가와 함께 구성 비율도 높아진 반면, 강사는 인원수의 감소와 함께 구성 비율도 감소하였다.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35.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7.3%, 비전임교원 47.4%로 나타나고 있다.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44.5%에서 2019학년도에는 52.6%로 증가한 반면,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55.5%에서 47.4%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은 1-20명 11.15%, 21-30명 16.15%, 31-50명 41.20%, 51-100명 5.50%, 101-200명 11.45%, 201명 이상 14.60%로 나타났다.

개설한 기초교양 교과목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기초교양교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48.3%, 0.1-5.0% 개설 대학이 24.43%, 5.1-10.0% 개설 대학이 5.69%, 10.1-15.0% 개설 대학이 2.27%, 15.1-20% 개설 대학이 2.27%, 20.1% 이상 개설한 대학이 5.12%로 나타났다.

한편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한개 대학에서 평균 4.09개의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은 만족도 조사로 나타났으며, 88개 대학 가운데 67개 대학, 76.14%의 대학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으로 88개 대학 가운데 61개 대학, 69.32%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 (5) 교양교육의 문제점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88개 전문대학 가운데 17개교(19.32%)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한 사람의 인간을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문대학에 있어서 대학의 설립 이념에 적합하고 교양교육의 보편적인 목적과 목표를 반영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 대비 기초교양 학점의 비율은 평균 13.8%로 일반대학의 26.8%에 비해 매우 낮고 그나마도 직업능력개발 관련 교과목과 취·창업 관련 교과목과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 전문대학 재학생들에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과 세계, 자연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강좌의 48.55%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이 59.13%의 기초교양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는 상대적으로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에는 교양 강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강좌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교양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넷째, 전문대학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기초교양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단위에서 개설된 기초교양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됨으로써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조사에 응답한 86개 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1개교(59.30%)에 그치고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속 교원은 평균 6.74명, 직원은 평균 1.78명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도 비전임교원과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각각 51.93%와 46%0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등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도 10%가 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2. 교양교육의 국내 운영 사례

### (1) 대구보건대학교

#### 가. 교양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대구보건대학교의 교육은 대학의 인재상인 ‘창의적 전문인’, ‘합리적 소통인’, ‘실천적 봉사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목표는 ‘DHC 6대 핵심역량을 갖춘 휴머니스트 양성’이며, 교양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휴머니스트는 성실한 인품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동시에 따뜻한 봉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한편 대학은 교양교육을 운영하는 데 주안점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양교육을 통해 6대 핵심역량(공동체 의식, 직업윤리, 문제해결력, 의사소통역량, 현장실무역량, 융복합역량)을 신장시킨다. 둘째, 학생들의 전공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기초학습능력을 갖출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및 선택의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미래 사회와 삶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교양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다섯째, 사회의 수요변화와 학문분야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초교양교육과정을 개선했다.

#### 나. 교양교육 현황

대학은 기초교양 졸업 이수학점을 학칙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학제별로 살펴보면 2년제는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는 26학점이다. 전체 졸업 이수학점 대비 기초교양 졸업 이수학점의 비율을 살펴보면 2년제 7.5%, 3년제 8.3%, 4년제 2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대학 전체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5> 기초교양 졸업 이수학점

학제	졸업이수 학점	전공 졸업이수 학점		교양 졸업이수학점		전문대학평균 교양 졸업이수학점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2년제	80	60	75.0%	6	7.5%	8.0	10.8%
3년제	120	90	75.0%	10	8.3%	14.9	13.4%
4년제	130	82	63.1%	26	20.0%	20.8	16.0%

현재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교무처 산하에 있는 직업교육 개발센터에서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무지원팀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 다. 우수한 점

대학의 6대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통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명확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예를 들어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요구와 대학의 핵심역량을 접목하여 공통 교양 코스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3개 과목(공동체와 직업윤리-직무역량과 문제해결-창의와 융합인재)을 이수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을 연계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양 코스의 직무역량과 문제해결, 창의와 융합인재는 전공교과목인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기초가 되도록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양과목으로 개발된 공동체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용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개발하여 인근 고등학교에 시범적용 하고 있다.

#### 라. 교양교육 발전 노력

대학의 총장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과 연계되고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교양교육은 직업교육과 연속선 상에 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 직업기초 능력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만 NCS에서 제시하는 직업기초능력을 그대로 교육과정에 가져와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학이 직업기초능력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72)</sup>

대학은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교양교육 운영조직의 구축 둘째, 교양교육 담당 교수의 원활한 수급과 배치 셋째,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 개발, 학생들의 이수방식과 학습 지원 방식 개선, 담당 교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72) 본 연구진은 2020년 9월 4일 대구보건대학교를 방문하여 남성희 총장과 교양교육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2)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가. 교육목표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방송예술」 산업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창의인재, 현장인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융합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력, 융합능력,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팀워크능력, 감성지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교양교육의 목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재상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6>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교양학부 교육목표 체계

<b>교육 목표</b>	균형 잡힌 인성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지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b>인재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li> <li>• 인간, 사회, 자연을 이해하는 지성을 갖춘 인재</li> <li>• 균형 잡힌 인성을 갖춘 인재</li> <li>• 세계시민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li> </ul>
<b>핵심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융합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유연한 사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li> <li>• 배려와 공감 인성으로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배양함</li> <li>• 인간, 사회, 자연을 이해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지성을 배양함</li> <li>• 국제사회에서 소통하는 어학능력과 국제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배양함</li> </ul>
<b>VISION</b>	「방송예술」 분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또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학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세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양교과목은 대학핵심역량 가운데 달성하고자 하는 주역량과 부역량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7>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 핵심역량별 학부 세부 교육목표

대학 핵심역량	학부 세부 교육목표
창의융합역량	• 창의력과 융합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협업역량	• 배려와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균형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 직업기초능력 향상으로 고용 적합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지식탐구역량	• 인간, 사회, 자연을 이해하고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글로벌리더십역량	• 국제사회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 나. 교양교육 현황

대학은 교양교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창의융합교양학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의융합교양학부에는 교무위원급인 학부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전임교원과 5명의 초빙 및 객원교원이 배치되어 있다.

대학은 모든 학과가 3년 학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졸업이수학점은 110학점이며, 그 가운데 전공교과목은 7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목은 18학점 이상(총 졸업 이수학점의 16.36%) 이수하도록 학사운영지침(2020.02.29.개정)에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양교과목 18학점 가운데 6~8학점은 교양필수인데, ‘기초실용영어(2학점)’, ‘프레젠테이션영어(2학점)’, ‘직업기초능력 I (2학점)’ 은 모든 학생이 수강하게 되며, ‘직업기초능력 II (2학점)’ 는 학과에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가운데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표 8>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양필수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	학년/학기	학점	시수		비고
				이론	실기	
교양필수	기초실용영어	1/1	2	1	1	
	프레젠테이션영어	1/2	2	1	1	
	직업기초능력 I	1/1	2	1	1	
	직업기초능력 II (학과에 따라 교필 또는 교선)	2/2	2	1	1	
	소 계		6~8	3~4	3~4	

교양선택과목은 의사소통, 직업, 인성, 자기개발, 창의융합, 인문학 영역으로 나누어 59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은 학과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교양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창의융합교양학부에 ‘기초융합프로그램실습’ ‘ 방송예술융합콘텐츠제작’ ‘캡스톤디자인’ 3개의 융합형 전공선택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들 교과목에는 각기 다른 학과의 복수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완성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9>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양선택 교과목 및 융합형 전공선택 교과목

이 수 구 분	영 역	교 과 목	개설학기				
			1 학년		2~3 학년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교양 선택	의사 소통	영어회화			○	○	
		인증시험영어			○	○	
		영어독해			○	○	
		문법작문			○	○	
		기초중국어회화	○	○			
		중급중국어회화			○	○	
		Speech in English			○	○	
	언어와소통	○	○				
	직업	자기개발능력			○	○	
		조직이해능력			○	○	
		의사소통능력			○	○	
		대인관계능력			○	○	
		문제해결능력			○	○	
		멀티미디어기술능력			○	○	
	인성	컴퓨터활용정보능력	○	○			
		사회봉사과제능기부	○	○			
		채플	○	○			
		디마창의인성특강	○	○			
		방송예술성공인특강			○	○	
	자기 개발	창의융합명사특강	○	○			
		생활체육(골프)	○	○			
		생활체육(윈드서핑)			○	○	
		댄스스포츠 I			○	○	
		댄스스포츠 II			○	○	
		진로설계와독서토론			○	○	
		패션셀프스타일링			○	○	
		창업과기업가정신			○	○	
		창업경영과금융경제			○	○	
		창업과커리어스킬업			○	○	
		1인예술과창업실무			○	○	
		문화예술콘텐츠창업			○	○	
		창의 융합	예술과기술융합			○	○
			콘텐츠크리에이터실습			○	○
	융복합문화예술의이해				○	○	
	창의적글쓰기				○	○	
	창의적사고와코딩		○	○			
	창의성개발과탐구				○	○	
	창의융합사고와실제				○	○	
	창의콘텐츠기획과 프로젝트				○	○	
	인문학	성가족사회	○	○			
		현대사회와종교			○	○	
		문명과기술			○	○	
		미학산책			○	○	
		고전읽기			○	○	
		동서양신화			○	○	
		현대문학예술			○	○	
		영상문학의이해			○	○	
		영화예술의이해	○	○			
		심리학			○	○	
		사회학			○	○	
문화예술정책의이해				○	○		
문화콘텐츠와스토리텔링				○	○		
영상저작권실무				○	○		
방송의이해		○	○				
대중문화의이해		○	○				
영미문화의이해				○	○		
중국문화의이해				○	○		
한국문화의이해				○	○		
전공 선택		창의 융합	기초융합프로그램실습	○			
	방송예술융합콘텐츠제작				○	○	
	캡스톤디자인				○	○	

#### 다. 우수한 점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양교육의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교육체계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교양교육 전담조직으로 창의융합교양학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2명을 배치하여 내실 있는 교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창의융합교양학부장의 위상을 교무위원급으로 하여 교양교육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총 졸업이수학점 110학점 대비 16.36%(18학점) 이상의 교양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학사운영지침에 명시하고, 대학 차원에서 영역별로 다양한 교양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교양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양선택교과목으로 인문학 영역에 19개의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라. 교양교육 발전 노력

총장을 비롯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전공교육과 함께 대학 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교양교육을 통해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의융합교양학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개발 및 개편하고 있다.

또한 창의융합교양학부에 복수 학과의 교수 및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3개의 융합형 전공선택 교과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4차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초연결과 클라우드 기술 등의 발달로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타 문화 이해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양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양필수교과목에 2개의 영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8개의 어학 관련 교양선택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3) 오산대학교

#### 가. 교양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오산대학교는 지성교육, 창조교육, 협력교육의 대학 교육목표에 따른 교양교육 목적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전인(全人)의 양성”으로 설정하고, 교양교육의 목표는 “인성을 중시하는 실무중심 명문대학의 비전에 부합되도록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정직한 지성인, 성실한 창조인, 유능한 협력인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정보만을 가진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고등직업전문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인성 및 소양교육과 글로벌 기초역량 강화교육 제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산대학교 교육목표

‘은근한 끈기와 노력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지성교육’  
 ‘색다른 사고와 시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교육’  
 ‘진솔한 배려와 소통으로 이상을 실현하는 협력교육’

<그림 1> 오산대학교 교육목표

나. 교양교육 현황

오산대학교는 2년제, 3년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에 교육과정을 전면개편하면서 전체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을 확대하였다.

<표 10> 졸업기준학점 내 졸업기준교양 (2019학년도, 오산대학교)

학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년제	졸업기준학점	80학점	72학점
	교양이수학점	<b>10학점(12.5%)</b>	<b>12학점(16.7%)</b>
	전공이수학점	54학점	48학점
3년제	졸업기준학점	120학점	108학점
	졸업기준교양학점	<b>14학점(11.7%)</b>	<b>16학점(14.8%)</b>
	졸업기준전공학점	83학점	74학점

2년제는 10학점(12.5%)에서 12학점(16.7%)으로, 3년제는 14학점(11.7%)에서 16학점(14.8%)로 상향되었다. 이는 전문대학 평균값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졸업이수학점이 줄어들었음에도 교양학점의 비율의 상승은 대학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우수한 점

대학은 다양한 교양교과를 개설·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게 교양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교육목표인 ‘색다른 사고와 시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교육’과 관련되면서 ‘인성’과 ‘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핵심교양교과목인 ‘칭학품성’과 ‘4차산업시대의 융합적사고’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여 전교생이 재학 중 1학기 또는 2학기에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또한 Science/Men/Art(SMArt)교육으로 특화된 과학, 인문, 예술 분야의 교양강좌를 다수 개설하고 전교생에게 분야별로 다차수강을 유도하는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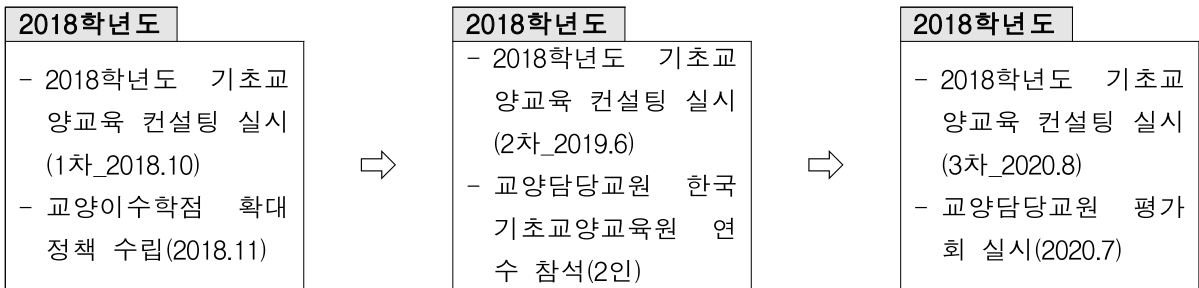
라. 교양교육 발전 노력

대학은 2018학년도에 4차산업혁명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전문대학의 미래는 직업 활동에 필요한 특정한 전문교육만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과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양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에 있음을 인지하고, 대학의 교

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교양교육과정 개편방향 방안연구’, ‘교양교육과정개발·개편 및 운영계획서’, ‘교양교육과정 운영평가보고서’ (2016~2019) 등의 교내 연구 수행과 교양교육 필요성 공유를 위한 교양교육 전문가 초청강연(2018), 총 3회에 걸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전문대학 기초교양컨설팅」 참여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른 환류·개선 이행(2019~2020), 대학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회의 개최(2018~2020) 등을 통해 교양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표 11> 총장의 교양교과목 개발 확대를 위한 교양교육 관련 전문자문 실시



#### (4)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

##### 가. 교육목표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0개 지역에 있는 한국폴리텍 I 대학~Ⅶ대학,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을 포함한 총 8개 대학에 대한 통칭이며, 35개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기능대학’<sup>73)</sup>이며, 고등교육법 상의 ‘전문대학’에 속하는 직업교육대학이다. 전 분야를 망라하는 일반전문대학과 달리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 기간산업, 신성장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기술인력의 양성(11)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 기능대학으로 출발하여 2006년에는 종합직업기술 교육대학인 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34개 캠퍼스 중 26개 캠퍼스에서 2년제 학위과정(15,000여명)을 운영하고 있다.<sup>74)</sup>

한국폴리텍Ⅱ대학(경인)은 인천캠퍼스, 안성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인천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산업학사) 12개 학과, 학위전공심화과정(공학사) 5개 학과, 비학위직업훈련과정 기능장과정 3개 학과, 하이테크과정 2개 학과, 전문기술과정 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폴리텍Ⅱ대학은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기술 인력양성’, ‘창의, 도전, 봉사정신을 갖춘 우수 기술인력양성’,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기술인재양

73)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 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참조)

74) 강현희, 「직업교육에서의 교양교육 강화 연구-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p.627-662, 2017.

성’,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경제형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목표에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기술인재양성’이 포함됨으로써 교양교육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교육목표에 제시되어 있다.

#### 나. 교양교육 현황

전문대학이 아닌 여타 직업교육기관에서의 교양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폴리텍II 대학에 소속된 인천캠퍼스 2년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의 학칙 ‘제4절 교과 및 수업’에서는 16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졸업기준 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에는 9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5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양교과를 전체 학점의 10~20%를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양교과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금형디자인과의 경우 2년제 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04학점으로 전문대학 2년제 전문학사 과정에 비해 24~32학점이 더 많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전공교과는 총 92학점, 교양교과는 총 12학점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양교과는 교양필수 4학점 교양선택 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5)</sup>

전체 졸업학점 대비 교양교과 졸업학점은 약 11.5%로써 전문대학의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평균값인 10.8%와 비슷한 수준이나, 교양과목 학점 수에 있어서는 12학점으로 전문대학의 평균값인 8학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공졸업이수학점 92학점의 이수시간인 1472시간 가운데 752시간(51.1%), 교양졸업이수학점 12학점의 이수시간인 192시간 가운데 80시간(41.7%)이 NCS적용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NCS적용 교양교과목은 ‘직업과 능력개발’ (32시간/2학점), ‘영어’ (32시간/2학점), ‘참사엔지니어’ (16시간/1학점) 3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각 2~4개의 NCS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직업과 능력개발’은 교양필수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75) 한국폴리텍II 대학, 「2020-2021 대학요람 - 2020학년도 금형디자인과 교육훈련운영계획서」, 2019.

<표 12>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금형디자인과 NCS적용 교양교과 편성표

이수구분	교과명	단원명	학습내용	교육훈련시간
교양필수	직업과 능력개발	의사소통능력	의사표현능력, 경청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12
		문제해결능력	문제처리능력, 사고력	10
		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 인사, 조직(노무)에 관한내용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관련내용	6
		직업윤리	근로윤리 - 반부패·청렴 또는 기업윤리	4
교양선택	영어	의사소통능력	기초외국어능력	28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능력	4
교양선택	참인엔지니어	자기개발능력	경력개발능력	12
		대인관계능력	갈등관리능력	2
		자원관리능력	인적관리능력	2
			합계	80시간 (5학점)

NCS미적용 교양교과목은 ‘스포츠 리더십’ (32시간/2학점), 포트폴리오제작법(32시간/2학점), 발명과 창업(32시간/2학점), 참인폴리텍(16시간/1학점) 4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스포츠 리더십’ 이 교양필수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13>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금형디자인과 NCS미적용 교양교과 편성표

이수구분	교과목명	주요구성내용(단원명)	교육훈련시간
교양필수	스포츠 리더십	체육활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이와 더불어 인격과 소양을 갖춘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	32
교양선택	포트폴리오제작법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습득하여 개인별 작품 슬라이드를 작성하여 시연할 수 있다.	32
교양선택	발명과 창업	발명의 이론과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인식 시키고 발명으로 특허권 취득, 창업 연결 등에 대한 학습	32
교양선택	참인폴리텍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10
		대인관계능력, 팀워크능력, 리더십능력	2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4
		합계	112시간 (7학점)

폴리텍대학의 경우 전체 졸업학점 대비 교양교과 졸업학점의 비율이 전문대학에 비하여 높고, 현재 교양교과목의 교육시수와 학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 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양적으로는 전문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양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보편적 교양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교양교육의 해외 운영 사례

#### (1) 캐나다

##### 가. 커뮤니티 칼리지 개요

캐나다의 고등교육 학제는 연방차원에서 통일된 체계가 없으며, 주 정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단기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보통 2년 이내의 과정으로 개설되며, 개설과정에 따라 자격(Certificate), 디플로마(Diploma), 전문학사(Associate Degree) 등이 부여된다.<sup>76)</sup>

캐나다 전문대학의 특징은 설립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각 도시에서 발달한 산업의 요구에 따라 산업체와 연계한 실용학문의 필요성 각 지역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문적, 실용적 학습에 대한 요구 및 필요한 인재상의 역할까지 삼박자가 맞는 모습에서 종합대학의 학문적 목적과는 구별되는 실용학문의 산실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각 도시마다 지역의 전문대학과 산업체는 상호 협동 관계에 있다. 전문대학의 규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평균 5,000명가량의 full-time 학생과 15,000명가량의 part-time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sup>77)</sup>

지역사회대학과 전문기술교육기관은 전통적으로 개설해 왔던 1년제 자격과정과 2년제 디플로마 과정에 추가하여 응용학위과정을 추가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종합대학과 혼합대학(University College)에서도 개설되고 있다. 응용학위과정은 전통적인 학사학위 과정과는 차별화 된다. 교육과정의 초점이 직업기술분야의 심화 학습에 두어지며, 보통 6학기의 강의와 2학기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응용학위과정은 현장중심의 실무능력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응용학위과정은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이 산업체 수요에 대응하도록 개발되기 때문에 최신 이론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개발이 되기도 한다. 응용학위 과정은 직업기술 전문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경영관리, 정보학, 공학, 예술, 인문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응용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되고 있다.<sup>78)</sup>

##### 나. 운영 사례 \_ 셰리던대학(Sheridan college)

셰리던대학은 1967년 설립되었으며, 총 400명 규모의 지역 대학에서 시작하여 온타리오주의 주요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성장하여 매년 약 24,500명의 풀타임 학생과 18,500명의 평생학습, 파트타임 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 내에 3개의 캠퍼스 운영 중이며, 애니메이션·예술 및 디자인 학부(36개 프로그램), 응용 건강 및 지역사회 연구 학부(4개 스쿨), 응용과학 및 기술학부(35개 프로그램), Pilon경영대학원(20개 프로그램), 인문사회과학부(6개 프로그램)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중등교육 품질 평가 위원회(the Post Secondary Education Quality Assessment Board)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학위에 대한 주요 학문

76) 이정표, 「고등단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영미권 국가의 학위제도 개편 동향과 시사」, 『직업능력개발연구』, 10(2), p.102-103, 2007.

77) 정일환·주동범,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체제와 교육개혁 동향」, 『비교교육연구』, 14(2), p.213, 2004.

78) 위의 논문, p.104.

분야 이외의 인문과 과학(Liberal arts and science)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표 14> 인문과 과학 과정

분야	소분야
인문학	영어/문학, 역사, 철학, 종교
사회과학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범죄학
국제 문화	문화연구, 정치과학
수학 과학	과학, 수학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 이외의 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Electives)을 이수함으로써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며, 사회 예술, 시민 생활, 사회 및 문화 이해, 개인 이해, 과학 및 기술의 다섯 가지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양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MTCU(The Ministry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정책지침에 따라 웨리던대학은 2005년부터 온타리오주 대학 수료증(certIFICATE), 졸업증서(diploma), 고급졸업증서(advanced diploma) 과정에서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수하는 졸업 자격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선택과목(Open General Education Courses)과 필수과목(Mandated General Education Course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과목은 특정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표 15> 일반 교육 선택과목 이수 기준

자격 기준	이수요건
Ontario College Certificate	선택 과목 최소 1개
Ontario College Diploma	선택 과목 최소 3개 / 필수 과목 최대 1개
Ontario Advanced Diploma	선택 과목 최소 4개 / 필수 과목 최대 2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양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아래 목록과 같이 문학, 역사, 사회,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표 16> 교양교육과정 개설 교과목 목록

분야	과목명
인문학	세계 언어
	스페인 문화 입문
	창의적 사고 : 이론과 실제
	문학과 대중 문화 속의 쯤비

		민속 및 동화
		문학과 영화 속 악당
		그래픽 소설
		회고록 : 이야기 속의 삶
		단서 따라 가기 : 영화와 문학의 탐정 소설
		고전 신화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의 예술
		국제 영화 소개
		컬트 이해
	환경 철학	
	사랑과 섹스의 철학	
	종교 철학	
	신앙의 길	
사회과학	정치학·경제학	현대 전쟁
		세계 문제에 대한 관점
		세계 대전 내러티브
		정치 입문
	사회학·문화학·심리학	인류학 입문
		정체성, 지위, 권력 : 소셜 미디어의 문제
		지구촌 탐방
		다문화 목소리 : 캐나다 이민 작가
		다양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 :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람
		미디어 및 시사
		인간-동물 관계의 심리학
		심리학 : 핵심 개념
		오명: 편견 이해
		고통과 엑스터시: 중독
		범죄 프로파일
		사회학 입문
		사회 및 행동 과학
		사기, 사기 및 신원 도용 : 정보화 시대의 사기 범죄
자연과학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웰빙 및 건강한 생활
		인기있는 다이어트의 과학
		웰빙을 위한 영양
		Cybernation
		과학 기술의 역사

프로그램별로 교양교육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기공학기술자(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프로그램의 경우 고글 전기 및 통신 원리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실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산업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졸업기준학점이 총 101학점이며, 이 가운데 9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의 선택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회계학(Business accounting) 프로그램은 기본 회계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는 과정으로 회계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과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기준학점이 총 72학점이고 이 가운데 9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필수교과목 1개(Reports & Presentations)와 선택교과목 2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 (2) 미국

### 가. 커뮤니티 칼리지 개요

미국 대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2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한국의 전문대학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대부분 ‘공립’ 학교라는 점에서 미국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한다.<sup>79)</sup>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이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개방체제와 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기본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준비, 직업기술교육, 재취업교육, 성인의 계속교육, 보충 및 향상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 등의 운영되고 있다.<sup>80)</sup>

1970년대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록 학생 수가 급등하면서 노동인력 양성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Grubb, Badway, Bell & Kraskouskas, 1996).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되었는데(Bragg, 2001), 1980~1990년대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의 범위 및 교육 방법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직업 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교육 과정에 교양교육이 강조되었다(Nolte, 1991; Townsend, 2001).<sup>81)</sup>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양교육이 강조된 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광범위한 역량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산업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진 것이며, 둘째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의 편입 비율이 증가하고, 보건 의료 분야, 경영, 행정, 공학 기술 등 응용 분야의 전문학사 졸업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편입과 직장 생활의 준비를 위해 교양교육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Townsend, 2001).<sup>82)</sup>

### 나. 화이트마운틴대학(White Mountain Community College)

화이트마운틴대학은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뉴햄프셔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햄프셔 주에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햄프셔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에 속한 7개의 대학 중 하나로 준학사 학위 및 수료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증진시키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준학사 학위 과정 22개, 자격과정 26개를 개설하고 있으며, 예술·인문학·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3개 프로그램), 비즈니스(3개 프로그램), 건강 과학 및 서비스 (7개 프로그램),接客 및 요리 (6개 프로그램), 산업 및 운송(12개 프로그램), 사회·교육 및 행동 과학(13개 프로그램), STEM<sup>83)</sup> 및 첨단 제조(4개 프로그램) 등 총 4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준학사(AS) 및 응용과학준학사(AAS) 학위 프로그램은 취업 및 관련 학사 프로그램으로

79) 박치현, 「미국 대학의 구조적 다양성과 한국 대학 고용구조 개선」, 『현상과 인식』, 44(3), p.177, 2020, .

80) 정지선·이길순,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미국 Community College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2), p.32, 2005.

81) 신동은·윤영순, 「미국 커뮤니티칼리지 교양교육 사례연구\_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 『교양교육연구』, 13(2), p.35-36, 2019.

82) 위 논문, p.36.

83)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의 편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전공교육과정은 최소 30학점, 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course)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1개 이상의 영역에서 최소 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인 60학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학점은 교수가 각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과목에 할당할 수 있다.

<표 17> 준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이수 학점

학위	영역	학점
응용과학 준학사 및 과학 준학사	영어작문	4
	과학	3-4
	수학	4
	사회과학	3
	인문학, 미술, 외국어	3
	교양 선택과목	프로그램별 상이

예술준학사(AA) 학위 프로그램은 4년제 과정으로의 편입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의 처음 2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편입하고자 하는 4년제 대학의 요건에 따라 아래 표에 제시된 영역에 포함된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표 18> 준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학점

학위	영역	학점
예술준학사	대학 작문	4
	영어 선택	3
	인문학, 미술, 외국어	3
	수학, 양적추론	4-8
	자연 과학 또는 물리학(최소 한 개의 과학실험 포함)	7-8
	사회과학	9
	교양 선택과목	15
	개방형 선택과목	9-12

한편 자격과정(Professional Certificates)의 경우에는 최소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양교육과정을 10학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표 19> 교양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

영역	조건	개설 교과목
영어	ENGL 접두사가 있는 코스 (ENGL087W 및 ENGL089W 제외)	고급연구저작, 아동언어문학, 대학 작문, 문예 창작 워크숍, 환경문학, 문학을 통한 문화탐구, 미디어와 사회, 노스 컨트리 문학과 뉴잉글랜드 전통, 구두커뮤니케이션, 시 : 문학 형식 연구, 고급작문, 미국 문학 조사, 영국문학조사 I : 700-1800년대, 영국문학조사II : 1800년대-21세기, 여성문학 조사, 그래픽 소설, 짧은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글쓰기, 단편 소설 쓰기 등
인문학	ENGL 접두사가 있는 코스 (ENGL120W, ENGL211W, ENGL220W, ENGL225W 및 ENGL230W 제외). ANTH, ARTS, HIST, HUMA, LANG 및 PHIL 접두사가 있는 코스	비판적 사고 세미나, 환경문제, 인문학 특강, 음악개론(음악 세계탐험), 영화 : 역사와 예술(미국영화), 세계종교,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현대를 위한 철학, 스페인어 II, 독일어 I, 공상과학과 철학 등
문학	ENGL 접두사가 있는 코스 (ENGL120W, ENGL211W, ENGL220W, ENGL225W 및 ENGL230W 제외)	고급연구저작, 아동언어문학, 환경문학, 문학을 통한 문화탐구, 미디어와 사회, 노스 컨트리 문학과 뉴잉글랜드 전통, 시 : 문학 형식 연구, 미국 문학 조사, 영국문학 조사 I : 700-1800년대, 영국문학조사II : 1800년대-21세기, 여성문학 조사, 그래픽 소설, 짧은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글쓰기 등
수학	MATH 접두사가 있는 코스 (MATH087W, MATH089W 및 MATH220W 제외)	미적분 I, 대학대수, 양적추론, 통계 등
과학	BIOL, CHEM, ENVS, GEOL 및 PHYS 접두사가 있는 코스	생물학, 인체해부생리학II, 인간생물학, 미생물학, 영양연구소, 화학, 환경 샘플링 및 분석, 화학개론, 지질학과 토양, 물리적 지질학, 재료과학, 물리학 I, 물리과학조사, 기술물리학, RASPBERRY PI의 물리학 등
사회 과학	ANTH, ECON, HIST, PHIL, POLS, PSYC 및 SOCI 접두사가 있는 코스	문화인류학 : 문화의 얼굴, 일의 민족지학, 돈 · 가족 그리고 미국경제, 거시경제학의 원리, 미시경제학의 원리, 20세기 미국, 고대 서양 문명(선사부터 1500년까지), 현대 세계 문제, 1877년까지의 미국역사, 철학입문(시험된 삶), 비정상 심리학, 교육심리학, 인간 성장과 발달, 심리학, 갭 : 이론, 영향, 예방 및 개입, 경제 및 지속가능성 소개, 사회학, 시골 미국의 사회학, 일의 사회학 등

프로그램별로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과학준학사 학위 과정인 자동차 기술 프로그램 (automotive technology program)의 경우 자동차의 복잡한 전자 및 컴퓨터 시스템을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2년 4학기 학제로 운영되며, 총 65학점을 이수한다. 커리큘럼에 따르면 첫 번째 학기에 수학(4학점), 두 번째 학기에 대학 작문(4학점)과 전기 및 전자(4학점), 세 번째 학기에 영어(3학점)와 사회과학(3학점),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인문학(3학점), 교양(3학점) 총 24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표 20> 자동차기술 프로그램 커리큘럼

학년-학기	과목명	교양	강의시간	실험시간*	학점
1-1	학업 준비		1	0	1
	자동차 서비스 소개		2	3	3
	자동차 전기 I		3	3	4
	자동차 엔진 및 관련 시스템		2	3	3
	수학	○	4	0	4
	<b>학기 합계</b>			<b>12</b>	<b>9</b>
1-2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4	6	6
	자동차 전기 II		3	3	4
	대학 작문	○	4	0	4
	전기 및 전자	○	3	2	4
	<b>학기 합계</b>			<b>14</b>	<b>11</b>
2-1	자동차 전자		2	3	3
	새시 서비스 및 정렬 절차		2	8	5
	자동차 용접		1	2	2
	영어	○	3	0	3
	사회 과학	○	3	0	3
	<b>학기 합계</b>			<b>11</b>	<b>13</b>
2-2	컴퓨터 진단 서비스 및 에어컨		3	8	6
	자동차 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3	3	4
	인문학	○	3	0	3
	교양	○	3	0	3
	<b>학기 합계</b>			<b>12</b>	<b>11</b>
<b>AAS 학위 합계</b>			<b>49</b>	<b>44</b>	<b>65</b>

\*실험시간 2시간 또는 3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

예술준학사 취득 과정인 교사교육 프로그램(Teacher Education Program)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4년제 학위 프로그램으로 편입하여 초등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사회과학교육, 영어교육 분야의 초,중등 교사로 진출하도록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총 65(또는 6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 가운데 첫 번째 학기에 대학 작문(4학점)과 인문(3학점, 예술, 음악, 역사, 외국어로 구성), 두 번째 학기에 대학 인문(3학점)과 과학(4학점), 세 번째 학기에 영어(3-4학점)와 인문(3학점),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수학(4학점), 과학(4학점), 사회과학(3학점) 총 37(또는 38)학점의 교양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표 21> 교사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학년-학기	과목명	교양	강의시간	실험시간*	학점
1-1	아동 성장 및 발달		3	0	3
	예외성 입문		3	0	3
	교육의 기초		3	0	3
	대학 작문	○	4	0	4
	인문	○	3	0	3
	<b>학기 합계</b>			<b>16</b>	<b>0</b>
1-2	교육 기술		3	0	3
	교육 설계		3	0	3
	심리학	○	3	0	3
	인문	○	3	0	3
	과학	○	3	2	4
	<b>학기 합계</b>			<b>15</b>	<b>2</b>
2-1	통합 예술		3	0	3
	세상의 수학 I		4	0	4
	교육 심리학	○	3	0	3
	영어	○	3/4	0	3/4
	인문	○	3	0	3
	<b>학기 합계</b>			<b>16/17</b>	<b>0</b>
2-2	교육 및 학습		3	0	3
	다양성의 기초		3	0	3
	수학	○	4	0	4
	과학	○	3	2	4
	사회과학	○	3	0	3
	<b>학기 합계</b>			<b>16</b>	<b>2</b>
<b>AA학위 합계</b>			<b>63/64</b>	<b>4</b>	<b>65/66</b>

\*실험시간 2 또는 3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

#### 4. 기초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역할 및 현황

##### (1)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전문대학에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센터’, ‘직업교육센터’, ‘교육혁신본부’와 같이 교육지원기구로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반 사립대학이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양대학이나 학부대학과 같은 단과대학 형태의 교육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교양교육 지원기구의 형태로 설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그 결과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양교육과 기초학문분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sup>84)</sup> 이와 같은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재는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떤 교육 목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교양기초교육의 강화와 심화를 위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대학에 교양기초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교양기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sup>85)</sup>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교육체계의 한 부분으로 교양교육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주로 학과의 의견이 반영되어 대학 차원의 교양교육 체계 구축이 어렵게 되며, 특히 교양교육이 학과마다 개별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의 보완 및 새로운 교양과목의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 또한 다양한 교양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간의 경계를 없애고 융·복합적 교양교육의 실현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위하여 교양교육 전담기구 및 조직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86)</sup>

정리하면 대학 내·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교양교육과정을 개발·개편·운영함으로써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양교육을 대학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 차원에서 교양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 운영을 통해 교양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학과 차원을 벗어나 대학 차원에서 이뤄짐으로써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전공에 연속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학과와 전공 간의 경계를 넘어 융·복합 교양교육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교양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교육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한편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성원들이 교양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결과로 다양성이 확보된 교육과정을 개발 및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2) 전담조직 설치 현황

설문에 응답한 대학 86개교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1개교(59.30%)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학생 3천명 이상의 대학은 69.76%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며, 1천명 이상-3천명 미만의 대학은 44.83%, 1천명 미만 대학은 57.14%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나 교양과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은 설문에 응답한 50개 대학 가운데 교무위원급인 경우 15개교(30%), 부처장(센터장)급 32개교(64%), 팀장급 1개교(2%)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별에 따른 부서장의 위상은 1천명 미만 대학의 경우 부서장을 교무위원급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대학은 부서장을 부처장(센터

84) 윤승준 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p.138, 2019.

85) 손동현 외,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p.266, 2012.

86) 위 연구 p.266.

장)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58.33%, 3천명 이상의 전문대학에서도 부서장을 부처장(센터장)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72.41%로 가장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84개 대학 가운데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75개교로 전체의 89.29%이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학은 전체 응답대학 74개교 중 32개교로 43.24%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외부기관 소속 위원이 참여하는 대학은 전체 응답대학 60개교 중 17개교(28.33%)였으며,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2.35회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과정에서 30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24개교(80%)가 교양교육센터급 이상의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던 대학들의 상당수가 2019학년도 이후 최근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전문대학에 교양교육 체계가 점차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축 방향

#### 가. 전담조직의 독립성 확보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성의 확보이다. 전담조직이 그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과가 교양교육 운영에 개입되면 그 성과를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전문대학에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최근 1~2년 사이에 이뤄진 일이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수준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초교양학부,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센터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현재 상당수의 전문대학은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양교육센터 수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처 등의 상위조직에 예속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그동안 내·외부적인 여건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전문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최소 교양교육원급 이상으로 하여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기초교양학부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한 축인 교양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부서장 위상 강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은 학교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교양교육 관련 의결 내용이 대학 교육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양교육원 수준이더라도 교무처 산하 기관, 심지어는 교수학습센터 내 부속기관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교양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sup>87)</sup> 교양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87)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http://konige.kr/sub02\\_08.php](http://konige.kr/sub02_08.php)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설치되고 참여 교원들의 위상이 제고 되어야 한다.<sup>88)</sup>

#### 다. 교수자 및 지원인력 충원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교양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교수자 중 전임교수의 비율 확대되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교양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상당부분을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인 면과 지속성 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학생의 수강 양에서 볼 때 교양교육이 학부교육에서 차지하는 강좌 비중이 40% 내외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지원시스템, 즉 행정지원체계 및 정규직 전담행정직원이 그에 걸맞게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sup>89)</sup> 전공교육체계에 준하는 교양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라. 정책적 지원 확대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인식을 대학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차원의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데는 교육정책 차원에서 소홀하였던 부분이 없지 않다.

한편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양기초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같은 교양교육과 연관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88) 홍석민, 「교양교육 정상화의 길」,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 혁신 토론회, 2019.11.27.

89)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http://konige.kr/sub02\\_08.php](http://konige.kr/sub02_08.php)

## Ⅳ.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구성

### 1. 기초교양 교육과정 구성모델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인재상은 전문성, 소프트웨어적 지식,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 상상력, 창의성, 인문학적 소양, 더불어 사는 인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탄한 기초교육, 개방적 의사소통능력 함양교육, 성찰적 인성교육, 감성적 상호작용과 교감 능력 함양교육과 같은 보편적 교양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sup>90)</sup>

이에 근래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보편적 교양교육에 대한 정의와 목적, 범위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나, 학교의 설립이념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과정의 설계와 구축 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보편적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sup>91)</sup>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미래사회는 단지 과학기술의 새로운 출현 외에도 그로 인해 산업구조와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교육 목적이 일반교육 및 취업에 맞춰지면서 학과와 전공 설치 방향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나, 인공지능을 통한 전문직의 대체와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성되고 기존 산업들이 쇠락하면서 학과나 전공의 생존주기가 점점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혁을 감당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역할은 빠른 산업 수요의 전환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즉 미래사회의 끊임없는 변화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인 미래 문해력(Future Literacy)의 고양을 통해 조직이나 교육과정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92)</sup> 미래 문해력은 트렌드 해석 능력, 유연한 대응 능력, 계획 수립 능력, 최적화 능력, 미래 탐색 능력으로 구성되는데 이로써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 및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의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sup>93)</sup>

이러한 내용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하는 기초교양교육표준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가)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교육 (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창의 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양교육 (다) 인성과 정서 능력 함양의 교양/소양 교육 구분이 그것으로 이 3가지가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에 필요한 조건들이다.

근래에 국내의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직업을

90) 윤우섭 원장은 ‘교양교육 혁신 심포지움’ (2017년 1월 11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공동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양교육 발전방향 토론회’ (2017년 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함.

91)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p.13-51, 2013.

92) 조현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11(2), p.53-89, 2017.

9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알에이치코리아, 2016.



위한 전반적인 교양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대학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고 교양교육의 구체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로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sup>94)</sup>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를 기초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업인은 전문직업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이고, 전문대학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보편적인 책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날 전문대학의 역할 중 하나가 직업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미래사회에 있을 변화와 다양성에 맞는 창업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교양교육과정이 단지 삶의 기본만 제공하고 전문지식은 전공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든 변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키우는 기초교육이면서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직업인 양성에만 있지 않으며, 삶을 통한 참된 학문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성을 지닌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정한 역량을 갖춘 인재상의 양성 필요성에 따라 대학의 교육목표에 연계한 교양교육목표 완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구성모델이 필요하다.

#### (1) 전문대학 교육과정 구성

전문대학 학사편람(2017.8)에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은 학사편람에 제시된 학사운영 원칙을 준용하여 구성된다.

#### 제 7장 교과 및 수업

제 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 80%~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안에서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94) 박혜정, 「핵심역량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 설계 모형 연구 -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2), p.65-67, 2018

교육과정 구조는 교육과정 내용을 담는 틀로써,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기본적인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구조에는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 전공교육·교양교육의 필수 이수학점의 배분, 영역별 학점 및 영역별 교과목 수와 더불어 교양교육과정의 유형 등을 포함한다. (이성호, 2009).

이 중 교양교육과정은 구성방식에 따라 자유선택제(free electives),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distribution requirement),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Boyer, 1987). 자유선택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편성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정해져 있지만, 필수과목은 특별히 없다. 자유선택제 교육과정은 하버드 대학에서 일대 교육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것으로 191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학 교육과정의 주류가 되었다.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는 자유선택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만을 마구잡이로 이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문 계열별로 교육과정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각 영역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영역에서 최저이수제를 설정해서 학생들이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지식 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배분이수제에는 배분필수이수제, 배분부분필수이수제, 배분선택이수제, 그리고 공통필수영역과 공통선택 영역으로 이원적으로 혼합하여 운영하는 이원적배분이수제로 나눌 수 있다(1999, 정혜영). 한편 중핵교육과정은 선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핵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엄선하여 모아놓은 것을 의미한다. 중핵 경험 혹은 중핵 개념이란 교과의 통합, 인간·역사 연구의 추진 또는 현대 사회문제를 의미한다(이성호, 1987). 이러한 주제는 학생들이 현재 혹은 미래에 직면하는 문제이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이종숙, 1997). 학교에 따라 중핵교육과정을 정해놓고 학생들에게 공통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중핵의 영역을 넣어놓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필수이수제, 부분필수이수제, 선택이수제, 그리고 필수와 선택으로 이원화하여 필수는 중점개별과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 (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육목표를 기준으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한 연구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여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으며,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구조 혹은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 또한 제시하기 힘들었다.

주현재(2013)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구 설치 현황, 교양학점 이수기준과 교양교육과정 편성 현황,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등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실태를 연구하였는데<sup>95)</sup>, 조사대상인 40개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 이수학점 기준을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7개나 있었으며, 대부분 전문대학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마다 교양학점 이수 조

95)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건이 각기 다르고, 편차가 크다는 점, 대부분 전문대학이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 교양교육과정이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점으로 들었다.

근래에 교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손동현, 2009a)<sup>96)</sup>,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혹은 전공과의 연계방법(민춘기, 김순임, 2012),<sup>97)</sup> 교양교육의 구성(서남수, 2010)<sup>98)</sup> 외에 교양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수동, 권양이, 2015),<sup>99)</sup> (김은주, 성명희, 2018),<sup>100)</sup> (박순애, 오성호, 박혜원, 2010),<sup>101)</sup> (박혜정, 2018),<sup>102)</sup> (이숙정, 이수정, 2012)<sup>103)</sup> (정선호, 2016)<sup>104)</sup> 외 최근 윤승준 외 5인(2019년), 이운지(2020)<sup>105)</sup> 가 전문대학 교양교육 모델에 관한 연구를 하는 등 전문대학 교양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양교육과정의 구조란 교양교육과정 내용을 담는 틀로, 교육과정의 편성구조에는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 교양·전공의 필수 이수학점 배분, 영역별 학점 및 영역별 교과목 수와 더불어 교양교육과정의 유형 등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들은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기준이 불분명하며 크게 졸업기준의 필수와 선택이라는 이수개념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같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 관점에서 볼 때 전문대학에 적용 가능한 교양교육과정 구성모델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2. 기초교양 교육과정 구성 현황 분석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구성모델 개발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기준틀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가) 학제별 교양이수학점과 비율 (나) 교양교육목표 설정 (다) 교양교육과정 편성 기준 (라) 교양교과목 충실도 등을 제시하고자 하

96)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대책」, 『교양교육연구』, 3(2), p.5-22, 2009.

97) 민춘기, 김순임, 「교양-전공 연계교육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예비 고찰」, 『교양교육연구』, 6(1), p.395-429, 2012.

98) 서남수, 「한국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p.1-18, 2010.

99) 김수동, 권양이, 「미국과 일본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대학교육 및 평생학습에의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회, 2015.

100) 김은주, 성명희,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수업만족도 분석」,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18.

101) 박순애, 오성호, 박혜원, 「인재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중심의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0(3), 한국국정관리학회, p.171-197, 2010.

102) 박혜정, 「핵심역량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 설계 모형 연구(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p.13-51, 2018.

103) 이숙정, 이수정,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2), 2012.

104) 정선호,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P대학 학생의 인식분석」, 『교양교육연구』, p.28-31, 10(4), 2016.

였다. 이 때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을 목적에 따라 각각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자료 1. 설문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관계자의 협조로 전국 전문대학 교무처 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교무학사 관련 담당자 대상으로 [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설문지를 발송 후 회수된 설문지 총 31개.

■ 자료 2. 컨설팅 사전진단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신청대학이 제출한 [ 00년도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000대학교 사전진단보고서 ] 중 3년간 사전진단보고서 (2018년 11건, 2019년 14건, 2020년 13건) 3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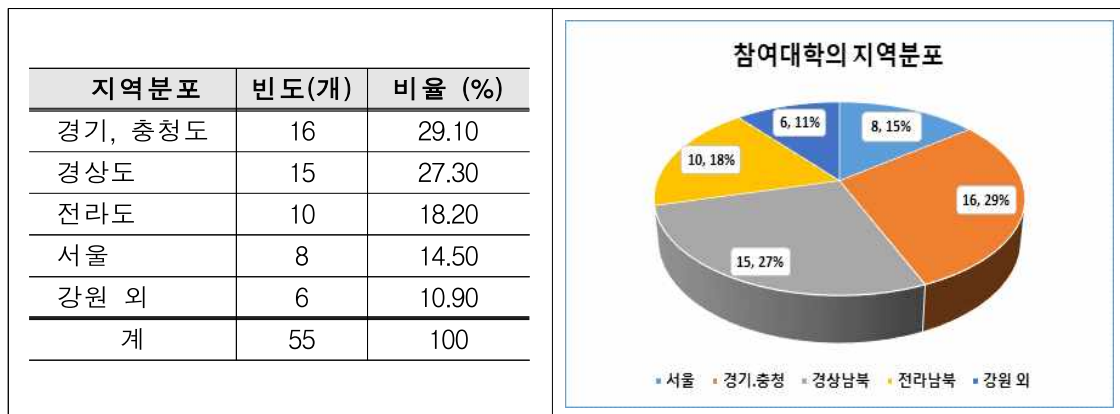
■ 자료 3. 설문지와 컨설팅 사전진단보고서

(자료 1)의 설문지와 (자료 2)의 컨설팅 사전진단보고서 중 미완성 설문지와 대학 중복성이 있는 사전진단보고서를 제외한 총 55개

(1) 참여대학의 지역분포

참여대학의 지역분포는 서울 8개, 경기·충청도 16개, 경상도 15개, 전라도 10개와 강원 외 6개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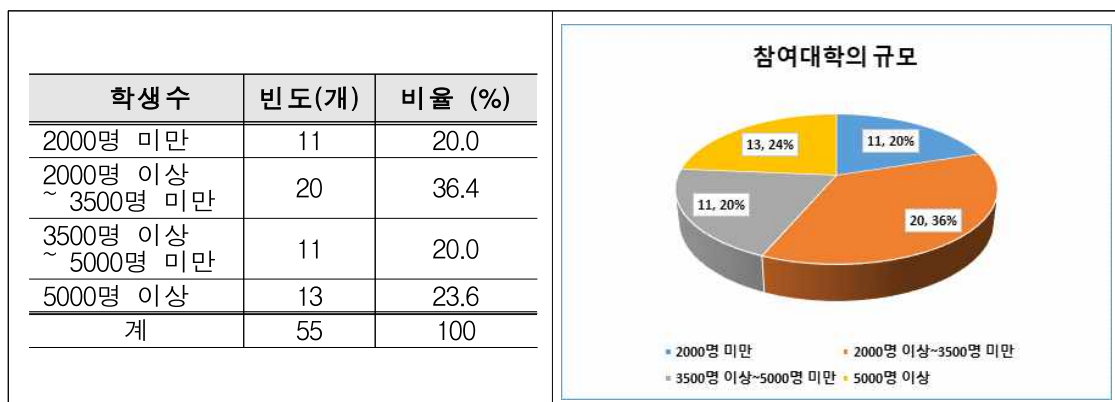
<표 22> 참여대학의 지역분포 (자료 3. 활용)



(2) 참여대학의 규모

참여대학의 규모는 2000명 이상~3500명 미만 대학이 20개(36.4%)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 5000명 이상 대학 13개(23.6%), 2000명 미만 대학 11개(20.4%)와 3500명 이상~5000명 미만 11개(2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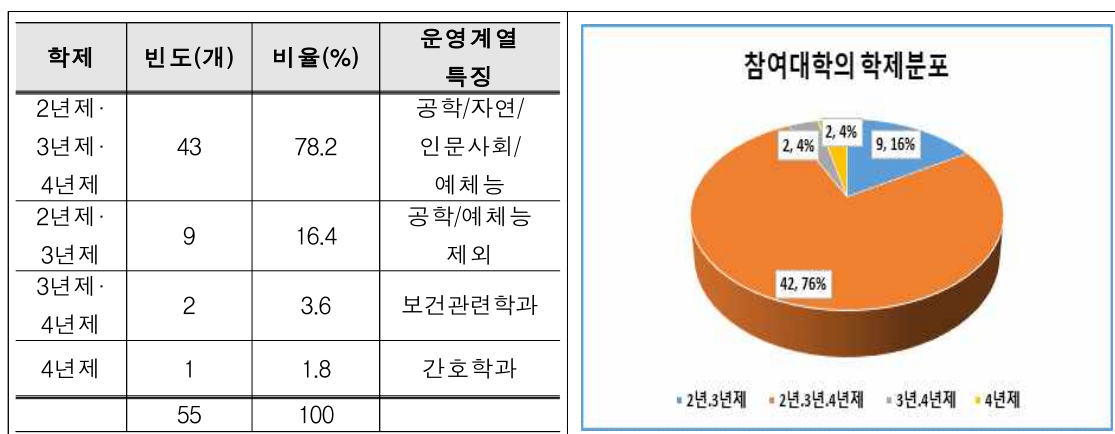
<표 23> 참여대학의 규모 (자료 3. 활용)



(3) 참여대학의 학제별 분포와 운영계열 현황

참여대학의 학제별 분포는 2년제·3년제·4년제 구성(7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년제·3년제 구성이 18개(16.4%), 3년제·4년제 구성 2개(3.6%), 4년제 1개(2%)로 2년제 학제는 없었다. 이때 관찰되는 특징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2년제·3년제·4년제 구성은 공학/자연/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 속한 대부분의 학과가 있었고, 2년제·3년제 구성은 공학 또는 예체능 계열이 없는 경우였다. 반면 3년제·4년제 구성 또는 4년제만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는 간호학과 또는 보건 관련 학과만 운영하는 대학이었다.

<표 24> 참여대학의 학제별 분포와 운영계열 현황 (자료 3. 활용)



즉 참여대학의 운영계열 특징을 보면 자연과학계열(간호학과와 보건관련학과)만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 (5.5%), 공학계열 또는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만을 운영하는 대학이 9개교 (16.4%)이었으며,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운영하는 대학이 대다수로 43개교 (78.2%)이었다.

### 3. 학제 및 계열별 기초교양 교육과정 현황 분석

#### (1)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전문대학은 2년제, 3년제, 4년제의 학제를 개별 또는 혼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졸업이수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 이수학점이 각각 다르게 편성된다.

2018학년도에서 2020학년도까지 3년간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및 졸업이수학점 편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표 25> 학제별 교양이수, 전공이수, 졸업이수학점 (자료 3. 활용)

학제	교양이수학점 (학점)	전공이수학점 (학점)	졸업이수학점 (학점)
2년제	6 ~ 16	36 ~ 54	70 ~ 80
3년제	8 ~ 19	42 ~ 86	100 ~ 112
4년제	13 ~ 26	57 ~ 102	128 ~ 140

교양이수, 전공이수, 졸업이수학점의 편성은 대학별, 학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교양이수학점을 보면 2년제 (6학점~16학점), 3년제 (8학점~19학점), 4년제 (13~26학점)가 차이가 나고, 같은 학제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일부 2년제 보건대학의 경우 교양이수학점을 6학점 또는 8학점으로 최저 편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위주의 실습 교육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양이수학점 편성이 매우 낮은 것이 특이했다. 한편 학제별 교양이수학점을 2년제 16학점, 3년제 19학점, 4년제 26학점 등 높게 편성한 대학은 교양교육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운영되는 간호학과는 간호인증평가를 위해 높은 교양이수학점 편성이유가 있음에도 학생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

한편 (자료 1) 설문지(문항 8)의 “귀 대학의 교양 졸업기준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교양이수학점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42%),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늘려야 한다.’ (35%)의 상반된 응답과 함께,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줄여야 한다.’ (13%), ‘잘 모르겠다.’ (3%)로 답했다.

이 결과는 대학이 교양교과목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대학의 경우 교양이수학점 개설 증가에 대한 부담감, 즉 교양교과목 개설로 전공교과목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유지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일부 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을 좀 더 상향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3%에 해당하는 4개 대학은 현재 대학이 설정한 교양 졸업기준학점에 대해 적절하지 않으며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교양교육 필요성과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설문 조사 결과 (8번 문항)

8. 귀 대학이 설정한 교양 졸업기준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비율
적절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3	42%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늘려야 한다.	11	35%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줄여야 한다.	4	13%
잘 모르겠다.	1	3%

(2)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비율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여부를 교양이수학점만으로는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 비율로는 상대비교가 가능하다. 즉 교양이수학점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의 교양교육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고, 이 같은 교양이수학점 비율 변화 등을 통해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표 27> 설문 조사 결과 (9번 문항)

9. 귀 대학의 수업연한별 교양 졸업기준학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교양이수학점 비율 범위	빈도(개)	비율(%)	교양이수학점 비율 (%)
2년제	10% 이하	2	9.5	11.4
	11 ~ 15%	11	52.4	
	16 ~ 20%	8	38.1	
	21 ~ 24%	0	0	
	25% 이상	0	0	
소계		21		
3년제	10% 이하	2	6.0	12.7
	11 ~ 15%	28	82.2	
	16 ~ 20%	4	11.8	
	21 ~ 24%	0	0	
	25% 이상	0	0	
소계		34		
4년제	10% 이하	1	7.7	21.2
	11 ~ 15%	0	0	
	16 ~ 20%	4	30.8	
	21 ~ 24%	7	53.8	
	25% 이상	1	7.7	
소계		13		

설문지 (문항 9) “귀 대학의 수업연한별 교양 졸업기준 학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비율의 적절성을 5단계 범위로 물었다.

이 결과 적절한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2년제의 경우 11%~15% (52.4%)가 가장 많았고, 16%~20% (38.1%)이었으며, 교양이수학점 평균은 11.4%이었다. 3년제의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11%~15% (82.2%)가 가장 많았고, 16%~20% (11.8%), 10% 이하 (6%), 평균은 12.7%로 2년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4년제의 교양이수학점 평균은 21.2%이었으며, 21%~24% (53.8%), 16%~20% (30.8%)로 적절한 교양이수학점 비율이 2년제, 3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이 결과는 윤승준 외 5인(2019년)의 연구에서 보여준 일반대학 4년제의 교양이수학점 범위인 33점~36학점과 비교해 볼 때, 전문대학 4년제의 교양학점은 여전히 낮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의 설정 적절성에 대해 ‘상향 필요’ 또는 ‘현행 유지’로 나타난 (문항 8)의 결과를 학제별 졸업이수학점의 적절한 비율을 묻은 (문항 9)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2년제, 3년제는 현재 대학이 설정한 교양이수학점의 평균을 설문조사 결과로 유지하거나 상향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교양이수학점의 적절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년제 (9.5%), 3년제 (6%), 4년제 (7.7%)가 10% 이하를 교양 졸업기준학점의 적절 비율을 표시하고 특히 보건 관련학과로 평균 교양이수학점 비율 21.2%를 운영하고 4년제도 또한 10% 이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대학이 교양이수학점의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문대학의 짧은 교육기간 동안 교양이수학점 비율의 상향은 전문대학 교육과정운영에 부담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연도별 ·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변화

그렇다면 전문대학은 교양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연도별 · 학제별로 교양이수학점 편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3)의 55개 대학 중 기초교양교육 컨설팅과 설문조사에 3년간 계속 참여를 한 11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분석으로 연도별 · 학제별 교양이수학점 편성의 변화추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11개 대학은 2018학년도 또는 2019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 결과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에도 연도별 · 학제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28> 연도별 교양이수학점의 변화 (자료 3 활용)

교양이수학점 변화	상향	하향	무변화	비고
2018 → 2019	1	-	1	2년제, 3년제 하향
2019 → 2020	-	3	2	
2018 → 2020	2	-	2	2년제 10% 하향 (24학점 운영)
계	3	3	5	

2018학년도 또는 2019학년도에는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 기준이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으로 전문대학의 학제별 졸업이수학점 축소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축



소 개편된 교육과정 적용이 안 된 시기였으나, 2018학년도 또는 2019학년도에 일부의 전문대학이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편으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는 졸업이수학점 기준이 2년제 72~75학점, 3년제 108~110학점, 4년제 115~130학점 정도로 축소 적용되었다.

<표 29>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변화 (자료 2 활용)

	2년제		3년제		4년제		특이사항
	학점	이수비율 (%)	학점	이수비율 (%)	학점	이수비율 (%)	
2018년	6~12점	7.5~15	10~18점	8.3~15	25~30점	17.8~21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정
2019년	8~15점	10~18	11~16점	9.8~14.8	11~35점	8.3~22.7	
2020년	4~12점	8~16.5	8~16점	7.2~14.8	10~30점	7.7~21	졸업이수학점 축소 적용

이 같은 전문대학의 학제별 졸업이수학점 축소 편성이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의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과 교양이수학점 비율에 높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2년제의 경우 2018학년도 6~12학점 (비율 7.5~15%), 2019학년도 8~15학점(비율 10~18%)에서 2020학년도 4~12학점 (비율 8~16.5%)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년제 역시 2018학년도 10~18학점 (비율 8.3~15%), 2019학년도 11~16학점 (비율 9.8~14.8%)이었던 것이 2020학년도 8~16학점 (비율 7.2~14.8%)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년제는 2018학년도 25~30학점 (비율 17.8~21%), 2019학년도 11~35학점 (비율 8.3~22.7%), 2020학년도 10~30학점 (비율 7.7~21%)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학들이 ‘졸업이수학점 축소’ 교육과정 편성 전인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는 교양이수학점과 교양이수학점 비율이 상향하고 있었으나,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편이 주로 일어나고 이에 따른 ‘졸업이수학점 축소’가 적용된 2020학년도에는 2년제와 3년제의 교양이수학점과 교양이수학점 비율이 하향됨으로써, 2018학년도에서 2020학년도의 3년 사이 2년제 교양이수학점이 10% 정도 하향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4년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교양이수학점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교양이수학점과 교양이수학점비율의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년제로 운영되는 보건대학(주로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인증제도 기준에 맞게 교양교육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졸업이수학점 축소’로 교양이수학점과 교양이수학점 비율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일부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교양이수학점 및 교양이수학점 비율을 상향시키는 변화 노력은 했어도, 전문대학의 교양이수학점 즉 교육과정 내의 교양교육은 결국 ‘졸업이수학점 축소’로 인해 교양이수학점 뿐만 아니라 교양이수학점 비율도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운지(2020년)의 연구결과에서도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의 변화를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 3.4를 활용한 그림을 보면 변화양상이 확실히 관찰된다. 2년제의 경우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에 졸업 이수학점이 약간 상향되다가 2020학년도에 하향되었으며, 3년제는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에 상향되었으나 2020학년도에는 약간 하향의 변화를 보였다. 4년제는 2018학년에 비해 2019학년에 학교별 차이는 있으나 2020학년에는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유지함이 관찰된다.



〈그림 2〉 연도별·학제별 교양이수학점 변화

전문대학의 학제별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전문대학이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던 강사법 개정과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인원 감소 등 사회 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대학이 선택한 자구책 방법이 ‘졸업이수학점 축소’라는 대안으로 나타났고 많은 전문대학이 결국 2018학년도 또는 2019학년을 전후하여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 축소’와 함께 교양이수학점의 축소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라 교양이수학점 축소를 점진적으로 진행한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교육과정개편에서 오히려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교양이수학점을 상향하였으나, 몇몇 대학은 3주기 기본역량평가 등 정부평가를 의식하여 급격하게 교양이수학점을 6학점에서 24학점까지 상향 편성한 것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결국 2020학년도에 2년제, 3년제의 교양이수학점이 상향되지 않고 하향 또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아 결국 교양이수학점의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 4. 기초교양 교육과정 목표 및 영역분류 현황 분석

### (1) 교양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 개발 원리에 따라 수립된 교육과정의 목표 및 목적은 교육과정 내용으로 전환된다(이성호, 2009).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을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본질을 지향하기보다 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현실적 특성에 치우쳐 있음에 고등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교육의 총체적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승준, 2019)

이에 2018학년도~2020학년도의 3개년 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전문대학 기초교양컨설팅에 참여한 총 38개 대학의 연도별 교양교육목표설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0>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자료 2. 활용)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대학		3개년 평균 (%)
2018년도	7 /11 (63.6%)	89
2019년도	14 /14 (100%)	
2020년도	13 /13 (100%)	

2018학년도에는 참여대학 11개교 중 7개교가 교양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설정 비율이 63.6%이었으나, 2019학년도, 2020학년도에는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양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교양교육목표 설정 비율이 100%가 되면서 2018학년도~2020학년도 3년간의 평균 교양교육목표 설정 비율이 89%이었다. 이 결과를 윤승준 외 5인(2019년)이 2018학년도~2019학년도 교양교육목표 설정현황을 분석결과인 80.68%와 비교하여 볼 때 상향되었으며, 이는 전문대학이 교양교육과정 구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교양교육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윤승준(2019년)은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 역시 한 대학에 하나로 한정되지 않으며, 대학별로 다양한 키워드를 교양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 수를 총합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조사대상 대학 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2018학년도~2020학년도 3개년 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목표에 사용된 유사범주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도별 빈도순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 3.4를 활용하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목표 키워드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표 31> 전문대학 교양교육목표 키워드 연도별 빈도 (자료 2 활용)

순위	교양교육목표	빈도		
		2018	2019	2020
1	인성, 덕성, 소양과 인성, 기초교육,	12	9	6
2	창의, 도전, 창의성, 창의적 문제해결, 창조인, 창의인재	9	10	8
3	기본소양, 기초소양, 지적소양, 소양교육	5	7	9
4	전인교육, 인간관, 세계관, 실천교육	8	6	7
5	핵심역량, 역량, 글로벌기초역량, 기초역량, 직무역량,	7	8	10
6	전문인, 직업인, 전문직업인, 고등직업전문인	6	6	5
7	NCS직업기초능력, 기초직무능력	6	4	3
8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사고역량	4	3	4
9	정보, 국제화능력, 글로벌교양교육	3	4	3
10	리더십, 전문성, 진로	4	3	2
11	융합기술능력, 융합인재, 융합기초교육	3	2	4
12	공동체의식, 공동체, 협동, 협력인재	2	2	6
13	미래사회, 미래개척	1	2	5
14	다문화, 사회관, 국제사회	1	2	3
15	대학교육목표, 없음.	2	0	0
16	비전	0	1	0



<그림 3> 연도별 교양교육목표 (목표설정)

2018학년도에 교양교육의 목표에 나타난 키워드는 <인성과 소양, 덕성 등>, <창의, 도전, 창조인 등>, <기초소양과 지적소양, 기본 소양 등>, <세계관과 실천교육, 전인교육 등>, <기초역량, 핵심역량, 직무역량 등>, <전문직업인, 직업인, 고등직업전문인 등>, <기초직무능력, NCS직업기초능력 등>, <비판적사고, 논리적사고 등>, <정보, 국제화능력, 글로벌 교양역량 등> 외에 리더십, 융합인재, 국제사회 순으로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들 중 공동체와 미래사회, 국제사회, 인재교육 등의 교양교육목표 키워드는 대학의 설립목적 또는 인재상에 맞게 설정된 반면, 11개 대학 중 일부 대학은 교양교육목표를 대학의 교육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실제 없다고 표현하였다.

2019년도에는 <창의, 도전, 창조인 등>, <인성과 소양, 덕성 등> 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세계관과 실천교육, 전인교육 등>, <기초직무능력, NCS직업기초능력 등> 은 줄어든 반면,

〈기초역량, 핵심역량, 직무역량 등〉과 〈기초소양과 지적소양, 기본 소양 등〉이 교양교육의 목표에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외에 〈정보, 국제화능력, 글로벌 교양역량 등〉와 〈다문화, 사회관, 국제사회 등〉도 교양교육목표로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2020년도에는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가 〈기초역량, 핵심역량, 직무역량 등〉, 〈기초소양과 지적소양, 기본 소양 등〉, 〈창의, 도전, 창조인 등〉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인성과 소양, 덕성 등〉과 〈기초직무능력, NCS직업기초능력 등〉은 2019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융합기술능력, 융합인재, 융합기초교육〉, 〈공동체의식, 공동체, 협동, 협력인재 등〉, 〈미래사회, 미래개척〉과 같은 미래사회, 융합기초교육 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문다양성과 인간 삶의 키워드인 ‘공동체의식’, ‘협동’ 등이 새롭게 교양교육의 목표에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역량’ 키워드가 교양교육목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근래 들어 NCS기반 교육 과정을 대신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전문대학 교육과정으로 급격히 대두됨에 따라 교양교육목표도 ‘역량’ 관련 키워드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대학은 교육과정운영 방향에 따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교양교육목표가 아닌 ‘역량’에 기준한 교양교육목표로 설정되고 있었다.

3개년 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목표에 특히 ‘창의’, ‘인성’, ‘역량’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문대학들이 교양교육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이는 윤승준 외(2019년) 연구에서 나타난 교양교육목표의 대범주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창의·융합·미래사회·문제해결”의 범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문대학 교양교육목표의 방향이 “인격·도덕·리더십”과 같은 전인교육을 위한 기초교육 관점에서 “창의·융합·미래사회·문제해결”과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 (2). 교양교육과정 편성 기준

### 가).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등과 연계하여 설정하므로 모든 대학이 획일화된 교양교육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으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필요한 기본 기준인 이수분류, 교양영역분류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 없이 대학별로 다양하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2018학년~2020학년 3개년 간 총 38개 대학(자료 2.)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에 사용한 유사범주 키워드를 연도별로 빈도순으로 분석 후,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 3.4를 활용하여 편성 분류의 변화 추이를 표현하였다.

교양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이수분류 기준이었던 교양필수, 교양선택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교양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18년도에는 〈교양필수, 교양선택〉은 여전히 편성 분류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많은 대학들이 〈융합교양·전공교양·직업기초교양 등〉, 〈학생자율교양, 전공교양, 개인선택교양 등〉, 〈Y형인재교양, 대학핵심교양, 학과지정교양 등〉와 같은 교양교육과정 내에서의 이수 특성, 대학교유의 분류키워드 등으로 분류 편성하였고, 이때 직업기초교양이 분

류 키워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표 3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키워드 연도별 분석 (자료 2 활용)

순위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빈도		
		2018	2019	2020
1	교양필수, 교양선택	7	5	5
2	융합교양, 전공교양, 직업기초교양	5	6	7
3	학생자율교양, 개인선택교양	5	3	3
4	Y형인재교양, 대학핵심교양, 학과지정교양	5	6	2
5	소통교양, 일반교양, 융합인교양	3	4	2
6	인성교양, 소양교양, 창의교양,	2	3	2
7	직업기초능력교양, 취창업역량교양	2	3	4
8	인문교양, 어학교양, 실용교육교양	2	3	2
9	외국어교양, 컴퓨터교양, 봉사교양	1	2	1
10	체험형인성교양, 설계형창의교양, 비교과교양	0	0	2



<그림 4> 연도별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교양분류)

2019년도에는 편성 분류가 더욱 다양해지는데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분류 빈도는 약간 감소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는 <융합교양·전공교양·직업기초교양 등>, <Y형인재교양, 대학핵심교양, 학과지정교양 등> 과 같은 전공 또는 직업기초교육에 기초한 교양분류와 역량기반교육을 의식한 대학핵심교양, 대학별 인재형의 교양, 학과지정교양이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일반교양, 소통교양, 융합인교양> 이라는 분류 키워드로 교양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대학들이 학제별 졸업이수학적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재편성을 하면서 교양교육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정의 없이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교양교육 이수분류 키워드를 이수분류 간 등가의 개념이 아닌 개설된 교양교과목 성격으로 교양교육의 편성 분류 키워드에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핵심교양, 직업기초능력교양, 기초융합교양, 인성·창의·융합 등의 역량기준 분류 외 취창업교양, 봉사교양, 실용교육교양 등으로 교양교과목을 자의적 기준으로 분류 편성하고 있었다. 즉 대학이 전공교육의 대체교육으로 또는 직업기초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편성 분류에 대학핵심교양 또는 학과지정교양 외 직업기초교양 등의 편성 분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다.

2020년도에도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분류는 계속 줄어든 반면, <융합교양·전공교양·직업기초교양 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기초능력교양, 취창업역량교양 등>, <학생자율교양, 개인선택교양 등>의 유형으로 분류가 증가하고 있었다.

즉 직업기초능력교양·직업기초교양 등이 특히 부각되었으며, 기초학습교양과 학생자율교양 등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소양교양, 실용교육교양, 기초학습교양 등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양교육목표에 따른 키워드 분류를 하고 있었으며, 교양교육의 운영방법인 체험형교양·설계형교양과 같은 분류도 확인되었다.

즉 3개년 간의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분류로 확인되는 것은, Y형인재교양, 대학핵심교양 및 인성·창의·융합 등의 역량기준 분류와, 학과지정교양, 학생자율·개인선택교양 등 선택주체 분류, 인문교양·어학교양·실용교양과 같은 학문분야 분류 외에도 외국어교양·컴퓨터교양·봉사교양과 같은 교과목별 분류 등 다양한 편성 분류가 있었다.

즉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분류를 기준과 정의 없이 대학별로 이수기준, 교양내용, 운영방법, 역량중심 등 각각 다르게 다양한 분류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있었다.

#### 나). 교양필수교과목 및 강좌수

윤승준 외 5인(2019년)의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구는 전문대학의 교양필수교과목의 평균 학점 수, 교과목의 개설 수, 권역별 교양 교과목 개설 과목 수 및 개설 강좌 수 등 다양하고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어떤 교과목들이 개설되었는지 3개년 간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표 33> 전문대학 교양필수교과목 키워드 연도별 분석 (자료 2 활용)

순위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빈도		
		2018	2019	2020
1	영어, 생활영어, 실전영어, 기초영어, 대학영어	7	5	3
2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4	5	5
3	사회봉사	3	5	5
4	진로지도, 직업윤리, 비전과진로	4	4	3
5	취업과 창업, 취업과진로, 창업멘토링	3	5	3
6	컴퓨터활용기초, 토익, 공감프레젠테이션	2	3	2
7	글쓰기와 말하기, 사고력과 글쓰기, 글쓰기훈련	2	3	3
8	4차산업혁명, 창의, 미래산업과 3D프린팅	2	3	4
9	국제교류, 법과생활, 가족과 결혼, 철학과 윤리, 실용금융	2	3	2
10	기독교이해, 채플	2	1	2
11	칭학품성, 인성과 의사소통	1	1	1

2018년도에는 대학들이 <영어, 생활영어, 실전영어, 기초영어, 대학영어, 일본어 등>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가장 많이 지정함으로써 교양교육 중요도를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목인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많았으며, <진로지도, 직업윤리, 비전

과 진로 등)의 교과목 외에도 <취업과창업, 취업과 진로, 창업멘토링 등>의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연도별 교양교육 과정(필수교양 교과목)

2019년도에는 교양필수교과목의 키워드가 외국어 교과목이 조금 감소하고,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사회봉사>, <취업과창업, 취업과 진로, 창업멘토링 등>, <진로지도, 직업윤리, 비전과 진로 등>의 직업기초능력과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많이 변화하였는데, 이는 취업과 창업 등 진로지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공학점에 편성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이수하게끔 한 대학의 방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기초교양교육의 필요에 따라 <글쓰기와말하기, 사고력과글쓰기, 글쓰기훈련>, <영어, 생활영어, 실전영어, 기초영어, 대학영어, 일본어 등> 교과목과 <4차산업혁명, 창의, 미래산업과3D프린팅>, <국제교류, 법과생활, 가족과결혼, 철학과윤리, 실용금융>과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창의 및 사고(思考) 교과목과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2020년도에는 교양필수교과목 키워드를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많이 설정하였고, <영어, 생활영어, 실전영어, 기초영어, 대학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과목이 조금 감소한 반면, <4차산업혁명, 창의, 미래산업과3D프린팅>의 미래 관련 키워드의 교과목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로써 교양교육목표 설정에서 보여주었던 “창의·융합·미래사회·문제해결” 범주와 일치하는 교과목들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어, 직업윤리, 취·창업과 진로 등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교과목은 여전히 교양필수교과목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대학은 건학이념에 근거한 <기독교이해, 채플>과 같은 종교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교양교육과정 운영지침 및 대학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학과별로 의무 이수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대학 또는 학과별 자율편성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즉 교양교육의 목표와 배치되는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결국 대학이 추구하는 교양교육목표 달성이 더욱 요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교양교육 다양성 기회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편성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3). 교과목 충실도

가). 교양교육목표 기준 교과목 개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주제와 내용, 교육방법의 변화 등 교양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교양교과목 개설 시 교과목 충실도를 위해 개설기준 마련과 함께 이를 반영한 교양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즉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교양교과목이 개설·운영되는지는 교양교육의 영역별 분류에 따른 교양교육의 목표 달성과 질 제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들이 교양교과목 개설 시, 교양교육의 핵심적이고 보편적 목표에 맞는 교과목 개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의 인재상이나 핵심역량 또는 전공교과 보충 등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하게 되는데 이는 교양교과목 충실도의 하향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제로 영역별로 균등하게 제시되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보편적인 교양교육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료 2)의 38개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개설한 교양교과목들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정한 교양교육목표에 충실한지, 유사범주의 교양교과목들은 무엇인지를 교양목표교과와 교양목표외교과로 분류하여 충실도와 빈도(%)를 분석하였고, 연도별로 개설 교양교과목 변화를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표 34>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정한 교육기초교육의 목표와 교양과정 내의 담당 영역

목표	교육과정 내의 담당영역
가.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기초교육
나.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기초교육
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교양교육
라.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교양교육
마.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교양교육/소양교육
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교양교육/소양교육

2018학년도에 개설된 대학들의 (n=11) 교양교과목들은 직업기초능력 및 취업 능력 함양을 위한 <문서이해와작성. 문제해결능력. 워드엑셀활용. 포토샵활용, 조선해양공학개론. 교육학개론. 어린이영어교육. 보육교사인성론 외> 와 같은 교과목들이 35% 정도로, 이들은 본연의 교양목표에 충실한 교과목이 아닌 교양목표 외 교과목이라 할 수 있었다.

한편 비교적 교양교육목표에 근접한 키워드로 개설된 교과목들은 전체 65%이며, 이들을 다시 영역별로 분포 비율을 보면, 소양교육 중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관련 교과목인 <사회봉사, 사회복지론, 생활법률. 국제개발협력의이해 외> 가 12%, ‘심미적 공감 능력 함

양’ 관련 교과목인 〈힐링피아노. 뮤지컬앙상블. 음식문화기행, 음악과생활. 음악과소통 외〉 교과목이 15% 정도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표 35>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정리 (2018학년도 기준. n=11)

사회복지론,중국어,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 등
문서이해와작성,경청과의사표현,기초영어speaking,기초영어reading,리더십개발,고객서비스,자기관리와경력개발,현대사회와직업윤리,조직이해와문제해결,워드엑셀활용,포토샵활용,댄스스포츠,택견과호신술,미디어와문화,기독교와사회,생활법률,미술로보는문화사,심리학의이해,패션과이미지메이킹 외
조선해양공학개론,교육학개론,문장의이해,논리적글쓰기,실전토익,한국어이해와소통,공학한국어,한국현대사회의이해,의사표현및직장예절,실무일본어,드론조종술,감정코칭 외
힐링피아노,뮤지컬앙상블,서비스커뮤니케이션,리더십과자기개발,생활영어,인간관계스킬,정보수리능력,진로설계와직업,정보해석능력,창업가정신,자기역량개발,토목창업,협동적인간관계,정보관리와문제해결능력,군대윤리,한국전쟁사,미용인의대인관계능력,한국사,직장생활즐기기
인성개발,창업과지식재산,컴퓨터활용,기초수학,언어논리,자료해석,수리적사고,기초일본어,직장리더십과팔로워십,갈등관리스킬과직장매너,말하기와글쓰기,실전영어,자기관리와이미지메이킹,온라인창업기술 등
골프영어,사회봉사,생활문화와예절,인성과진로 등
인문학과인간이해,인성과예술,음악과소통,미술과자아탐구,사람과생명윤리,상상세계,레크리에이션,몸짱정신짱,다이어트와건강,생활응급처치,생활법률,티엔커피소몰리에,생활과행정,글쓰기와말하기,의사소통영어,대학실용한자,대학수학,자연과학의이해 외
아트채플,미래설계와성공세미나
영어,일본어,엑셀,관광법규,대인관계화의사소통,가족과결혼,심리학입문,음식문화기행
음악과생활,진로코칭,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문학적글쓰기,대인관계,의사소통,
문학과인생,동서양역사읽기,철학과지혜,예술로사랑하기,음악으로생각하기,한국문화의이해,영어,중국어,엑셀,셀프리더십,쓰기듣기말하기,사회봉사 등

또한 기초교육영역의 교양교육목표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교과목인 〈의사소통영어, 영어, 중국어, 의사표현및직장예절, 대인관계와의사소통 외〉가 17%,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교과목인 〈말하기와글쓰기, 문학적글쓰기, 문장의이해, 논리적글쓰기, 쓰기듣기말하기 외〉가 9%를 차지했다.

이외 교양교육영역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과목은 7% 정도로 〈리더십개발, 인간관계스킬, 인문학과인간관계, 사람과생명윤리, 한국사, 자연과학의이해, 한국현대사회의이해 외〉 등이 개설되었다. 또한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으로 〈수리적사고, 언어논리, 4차산업혁명과창의성개발, 생명역사, 융합적사고 외〉 등이 5% 정도 개설되었다.

2019학년도에 대학들의 (n=14) 개설 교과목에서 교양목표교과의 비율이 2018학년도의 65%에서 70%로 상승하였으나,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분포 양상은 2018학년도와 매우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즉 소양교육영역의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관련 교과목 19%,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

양’ 관련 교과목 13% ‘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기초교육영역의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교과목이 17%,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교과목이 9%이었다. 교양교육영역은 여전히 적게 개설되었으나,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관련 교과목은 7%로 개설률이 증가한 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과목은 5%로 더 감소했다.

한편 교양목표 외 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및 취업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들은 전체의 30% 정도로 개설비율이 많이 감소했다.

<표 36>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정리 (2019학년도 기준, n=14)

사회봉사.기초생활영어.일본어.중국어.국어.수학.영어.SMAT.워드프로세서.파워포인트.엑셀.의사소통과대인관계능력.직업윤리와문제해결능력.
소프트웨어코딩.그림속인문학산책.리듬과멜로디여행.스토리가있는유럽역사문화기행.휘트니스와자기관리.골프입문.테니스.말하기와글쓰기.
인성과삶.직업윤리.예술과미학의세계.영어회화.스크린영어.생명역사융합적사고.
패션과사회문화.생활속디자인.예술감상.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영화와예술.영어회화.중국어.영화속세상읽기
인성과리더십.직업기초교양.기초통계.
인문학이해.간호와창업.건강과음악.인성교육.역사와문화.창의와융합.한국사.4차산업혁명과인문학
문제해결능력.알기쉬운부모이야기.영어회화.실용금융.생활속의저작권.창업회계실무.좋은시민과공동체
영화로세상보기.음악과스토리텔링.미술사의이해와감상.글로벌시대의한국.일본어.법치사회의이해.재미있는코딩
고급한국어.공업수학.노인복지론.사회봉사.교육심리.문제해결능력과직업윤리.의사소통능력.진로탐색.자기표현과글쓰기.철학.한국어.정보능력.예절과문화.
4차산업혁명과창의성개발.독소와토론.자아탐색과행복.SW코딩과드론활용.여성과건강.의사소통과대인관계능력
어린이영어교육.보육교사인성론.영어회화.기초수리이해.성공취업및취업전략.조직이해와직업윤리.국제개발협력의이해
논리적글쓰기와의사소통.감성인문학.중국어심화.디지털인문학과과의사소통.3D프린팅.현대사회와윤리.대인관계심리학.성공취창업전략.
명사들의삶.문서작성.부동산용어활용.실전경매실습.여성과사회.열린생각과말하기.인체의이해
생활속에심리학.반려동물과창업.서비스리더십.캐릭터디자인.사진과예술.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알기쉬운문학산책

2020학년도에는 교양목표 외 교과목의 비율은 더 많이 감소하여 23% 정도로, 교양교육목표 교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역별로 볼 때, 여전히 소양교양, 기초교양, 교양교양 순으로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높았다.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관련 교과목 24%,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관련 교과목 15%로 소양교양영역 교과목이 교양목표 교과목의 1/2에 해당하는 정도로 많이 개설되었고,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교과목 13%,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10%의 기초교양영역 교과목이 1/3에 약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개설되었다. 이에 비해 교양교육영역인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관련 교과목은 7%,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관련 교과목은 6%로 기초교양영역의 반 정도로 여전히 개설비율이 낮았다.

<표 37>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정리 (2020학년도 기준, n=13)

4차산업혁명.IT트렌드.미래사회.미래디자인.놀이와커뮤니케이션.디지털패러다임.문화예술.빅데이터.미술사.아날로그와디지털의만남.예술과과학기술.이미지비평.창작워크숍.사회봉사.
인성과진로.인성함양.미술의이해.영화속세계문화.문학으로세상읽기.의사소통영어.실용글쓰기.대인관계심리학.리더쉽과커뮤니케이션.철학과삶의지혜.
생활체육.스포츠영양학.영양과건강.인간과사회.사회봉사.기독교와현대사회.문장과글쓰기.생활심리학.리더쉽과외사소통.
알기쉬운과학이야기.말하기와글쓰기.4차산업시대의 융합적사고.언어논리.의사소통기술.갈등관리스킬과직장매너.리더쉽과커뮤니케이션의이해.자료수집및해석
재난과안전.표현과전달.철학.부모교육활성화.사회복지.글로벌문화와매너.공감.건강요가.심리학콘서트.
인간과환경.직업윤리와인성.글로벌에티켓.스포츠레저.건축학개론.인문학.건강과성.수리능력.발표와토론.
세대공감커뮤니케이션.문학적글쓰기.음악과생활,다문화이해.인성과매너.기초통계와실습.철학개론.
명품인성온니버스.의사소통과공감.심리학.한국사.시민생활과법률.생활안전과재난대비.직업과자기관리.쓰기와말하기.읽기와듣기.사회복지.윤리와철학.
인문학.지역문화와행정.댄스스포츠.인간행동과심리.제도와사회.사진의이해.사랑의심리학.여성학의이해.생활과법률.음악과힐링.요리와힐링.역사알기.역사기행
현대미술이해.클래식과문화.역사.미디어,법.인체와질병관리.골프초급.삼과복지.비판적사고.문제해결.통계.글쓰기.현대사회.NGO.인간이해와배려.조직과소통.
다도.인성계발.직업윤리.직장예절.사회봉사.인간과문화.글로벌문화.생활과음악.사회규범과질서.기초생활교육.음악과힐링.예술문화.독서지도.
리더쉽.산업화와노동문제.색채학.심리학.미술의이해.여성학.한국사.수영.스키.
창의적글쓰기.생태환경과인간.다문화사회.건강과운동.음악과힐링.논리와수학.한국역사.현대사회.인성과매너.

이 같은 3개년 간 대학별로 개설된 교과목의 교양교육목표 충실도 분석에서 관찰되는 것은 교양목표 외 교과목 즉 교양교육목표에 충실하지 못한 교과목 개설비율은 35%에서 30%, 23%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록 완전하게 교양교육목표에 충실하지는 않으나 교양목표 교과목들의 개설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개년 간 소양교양영역의 교과목 개설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교양영역, 마지막으로 교양영역의 교과목이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교양영역의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교양교육목표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교과목의 경우, 3개년 간 계속 높은 개설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이 사회봉사와 같은 교과목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에 대한 교양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교과목인 채플 및 유관 교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많았다.

<표 38> 교양교육목표 기준 개설 교양교과목의 연도별 특성 (자료 2 활용)

구분	교양교육과정 (교양교육목표 기준 개설 교양교과목)		빈도(%)		
	교양교육목표	개설 교과목	2018	2019	2020
교양 목표 교과	가.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말하기와글쓰기.문학적글쓰기,문장 의이해.논리적글쓰기,쓰기듣기말하 기 외	9	10	10
	나.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의사소통영어.영어.중국어.의사표현 및직장예절.대인관계와의사소통 외 리더십개발,인간관계스킬,인문학과	17	15	13
	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인간이해,사람과생명윤리. 한국사, 자연과학의이해,한국현대사회의이 해 외	7	6	7
	라.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수리적사고,언어논리,4차산업혁명 과창의성개발.생명역사.융합적사고 외	5	7	8
	마.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사회봉사,사회복지론,생활법률.국제 개발협력의이해 외	12	13	15
	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힐링피아노.뮤지컬양상블.음식문화 기행,음악과생활.음악과소통 외	15	19	24
교양 목표 외 교과	기타. 직업기초능력 및 취업 능력 함양	문서이해와작성.문제해결능력.워드 엑셀활용.포토샵활용,조선해양공학 개론.교육학개론.어린이영어교육.보 육교사인성론 외	35	30	23
			100	100	100



<그림 6> 교과목 총실도(교양교육목표 주제 교과목)

나). 사회·문화적, 지적요구 교과목 개설 현황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교육환경에도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대학은 학습자에게 사회·문화적 요구와 지적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제공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교양

교과목의 개설에 있어서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자를 위한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성을 갖춘 교양교육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대학은 끊임없이 개설교과목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학문적 검증 등을 거쳐 새로운 교양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즉 대학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의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 항목 분류 중 “대학들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이 사회·문화적으로, 지적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도별 교과목 키워드 분석하였다.



<그림 7> 교과목 충실도(사회적, 지적요구 교과목)

2018학년도의 사회·문화적, 지적요구 반영으로 대학이 개설한 교양교과목으로는 <문서이해와 문서작성, 고객서비스, 러시아문화, 고전음악의 이해, 직업에티켓, 여성과 사회, 생활스포츠, 정보능력, 언어능력, 리더십개발 등> 다양한 교양교과목이 있었다. 이들 교양교과목은 일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공한 교양교육목표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있기도 하나,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대다수이었으며, 진정한 교양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목이 아닌 생활에 필요한 일부 예절과 상식과 정보능력을 교양교과목으로 변모하여 개설하고 있었다.

2019학년도에도 역시 <푸드아트테라피, 미래생활알아보기, 성과문화, 종교와 문화, 리더십, 영화와 인생, 독서와 토론, 서양미술사 사진과 예술, 한국사, 생활금융 등> 사회의 생활교육에서 접할 수 있는 비교과 성격의 프로그램 또는 전공에 필요한 기초교과목을 사회·문화적, 지적 요구 반영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2020학년도의 사회·문화적, 지적요구 반영의 교과목으로는 <인권, 기초통계, 서비스매너, 법과 윤리, 지구과학과 인체신비, 현대사회의 이해 등> 같은 교양교육 영역의 교과목 외에 <연주와 힐링, 라이프로드맵, 인성계발, 실용한자 등>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심리적 공감향상을 이룰 수 있는 교양교과목 등이 많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들 교과목은 일부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격이고, 일부는 학문적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성격의 교과형태로 많은 전문대학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대학은 교양교과목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들이 여전히 교양교과목을 개발·개설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지적요구를 반영한 교양교과목으로 무엇이 적합하며, 교양교육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교과목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표 39> 설문 조사 결과(10번 문항)

10. 다음 중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가능)		
순위	빈도	비율
글쓰기 (의사소통)	26	84%
디지털 문해력	18	58%
인간과 사회	18	58%
영어(외국어)	13	42%
문화와 예술	12	39%
자연과 기술	3	10%
고전 읽기	2	6%
⑧ 기타( )	인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10.의 전문대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양교과목을 묻은 복수 응답 질문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온 교과목은 글쓰기(의사소통) 84%, 디지털 문해력과 인간과 사회가 동일하게 58%, 영어(외국어) 42%, 문화와 예술 39%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자연과 기술, 고전읽기 등도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모든 교과목들 또한 교양교과목으로서의 충실도 확인이 필요하나, 많은 전문대학이 학점의 한계, 전문성 있는 교양교육 교수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함에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의 충실도를 완성하지 못함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구성을 뒷받침할 교양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표 40> 설문 조사 결과(13번 문항)

13.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답해 주십시오. (최대 2개 선택 가능)		
	빈도	비율
기초교육 영역, 교양교육 영역 등 교양교육과정의 체계 수립	17	55%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의 방향성 확립	15	48%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제시	15	48%
전문대학의 교양필수교과목(핵심교양 또는 중핵교과) 제시	8	26%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과정의 적정 운영 비율 제시	6	19%

설문문항 13.에 나타난 교양교육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에 대한

2개의 중복 응답으로, “기초교육 영역, 교양교육 영역 등 교양교육과정의 체계 수립” (55%),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의 방향성 확립”,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제시” 가 동일하게 48%, “전문대학의 교양필수교과목(핵심교양 또는 중핵교과) 제시” 26%, “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과정의 적정 운영 비율 제시 ” 19%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제 수립, 방향성, 교수학습법 제시 및 교양교과목 제시 등 모든 항목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표현하였다.



## V.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기초교양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 연구이며 이러한 특성을 “국내외 기초교양 운영사례 및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통해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의 후속 연구가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은 단편화되거나 획일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정의와 목표 그리고 편성과정에서의 분류 기준 등이 명확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운영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학이 겪고 있는 혼란과 오류는 앞으로도 지속될 공산이 높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시 상위, 중위, 하위 개념으로 분류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이수기준에 의한 분류, 교양목표에 의한 분류, 운영방법에 의한 분류, 역량기준에 의한 분류 등 보편적인 기초교양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대학 특성별, 학제별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학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진행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초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설정의 정합성

여전히 적지 않은 전문대학에서 기초교양 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이미 기초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는 있는 대학들 역시 설정한 목표가 교양교육의 본질에 부합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목적을 전제로 각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초교양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합성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추후 전문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도 활발히 활용될 것이다.

### (2) 교양교육과정 편성(안) 제공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을 위한 다양한 분류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다. 현재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교육과정이 어떤 분류에 기준하여 편성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부재한 상태다. 이것은 결국 기초교양교육의 체계의 미흡으로 연결되며, 교양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 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분류 등으로 편성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하여 대학이 활용 가능한 편성(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방안을 전문대학 학사운영편람 등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확산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 (3) 교양필수교과목의 개설 기준 제공

대학이 교양교육과정 편성 시 이수구분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양교과목을 필수 이수료 규정하지는 않아도 대학 내부의 규약으로 학과별 필수처럼 수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를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교양필수교과목 개설과 같은 교양교육정책은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 (4) 교양교육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개설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양교과목의 영역분류와 교과목 개설방식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교양교육의 목표에 근거하여,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영역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양목표를 분류기준으로 보고, 영역을 추가하거나 재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에서는 기존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영역별 교양교과목 개설방식 외에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의 후속 작업을 위한 4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초교양교육의 목표가 자유교양 및 직업기초능력을 아우르는 역량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은 방법론적으로 전문대학 특성과 부합되는 핵심역량을 활용한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제별 교양 이수학점 권장 비율, 교과목 충실도를 대학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판정 기준, 기초교양 교육과정 영역 구성의 분류방식과 함께 전공교양 등 현재 교양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는 전공에 해당되는 영역의 배제 방식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교양교육 모델 구축에 따른 운영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보유 여부는 조사에 참여한 대학 기준으로 59.3%에 그치고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속 교원은 평균 6.74명, 직원은 평균 1.78명으로 배치된 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과 지원시설 확보 등 효과적인 교양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의 학과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에서 벗어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양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관리하는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교양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환류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이래로 실시 중인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사업이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교육의 질적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컨설팅 사업 확대를 통해 개별 전문대학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진단하여 보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경중·이전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22, 한국직업교육학회, 2003.
- 강현희, 「직업교육에서의 교양교육 강화 연구-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권영심, 「명지전문대학교의 교양교육 운영사례」, 2013년 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2013.
-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 김기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대중·김소영,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과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핵심역량교육연구』 2-1, 2017.
- 김수동, 권양이, 「미국과 일본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 대학교육 및 평생학습에의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회, 2015
- 김은주, 성명희,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와 수업만족도 분석」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18
- 김은준, 「성찰적 글쓰기가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문승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민춘기, 김순임, 「교양-전공 연계교육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예비 고찰」, 교양교육연구, 6(1), 395-429, 2012
- 박순애, 오성호, 박혜원, 「인재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중심의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0(3), 한국국정관리학회, 171-197, 2010.
- 박치현, 「미국 대학의 구조적 다양성과 한국 대학 고용구조 개선」, 『현상과 인식』, 44-3, 2020.
- 박혜정, 「핵심역량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 설계 모형 연구 -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5-67, 12.2, 2018
- 배수현, 「NCS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Y 대학교 사례를

-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14-4,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2018.
-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13-51, 2017.
- 서남수, 「한국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1-18, 2010
- 서영인, 「고등교육 평가체제 선진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대책』 『교양교육연구』 3(2), 5-22, 2009a
- 손동현 외,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 손동현, 『대학 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철학사, 2011.
- 송명진, 「국어교육과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제도-전문대학의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 신동은·윤영순, 「미국 커뮤니티컬리지 교양교육 사례연구\_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 『교양교육연구』 13-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교양교과목 개편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 과정 개편 연구」, 『교양교육연구』 9-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5.
- 원만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윤승준 외 5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 이상은·소경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한국교육과정학회, 2019.
- 이수현,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2,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 이숙정, 이수정,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2), 2012.
- 이운지, 「전문대학 교양교육 모델 제안을 위한 운영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 『교양학연구』 12,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0.
- 이재준,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통합적 접근 가능성」, 『

- 교육문화연구』 24-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 이정표, 「고등단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영미권 국가의 학위제도 개편 동향과 시사」, 『직업능력개발연구』, 10-2, 2007.
- 이종엽 외 4인,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전공심화운영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2020.
- 이지원·정원희, 「명지전문대학교의 교양교육 운영사례」, 2013년 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3.
- 전은실·이로미,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 논문집』 11-1,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10.
- 정선호,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P대학 학생의 인식분석」 교양교육연구, 10(4), 2830310, 2016.
- 정일환·주동범,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체제와 교육개혁 동향」, 『비교교육연구』, 14-2, 2004.
- 정지선 · 이길순,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미국 Community College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2, 2005.
- 정철민,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철학』 73, 한국교육철학회, 2019.
- 조현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11(2), 53-89, 2017.
-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취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교양교육 운영현황과 교수요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 주현재·김현우, 「전문대학에서의 NCS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S 보건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8-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 주현재 외 2인, 「4Cs 역량 증진을 위한 코딩 교양 교과목 개발」, 『문화와융합』 41-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최상덕, 「역량기반교육의 의미와 대학 역량 교육의 방향」, 2020 한국교양기초교

육원 고등교육정책포럼, 2020.11.27.

최윤경,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교양교육연구』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하경숙, 「대림대학교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발전방안」, 『대학작문』 10,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허영주, 「NCS 직업기초능력의 교양교육과정 도입 전략 탐색」, 『교양교육연구』 10-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홍석민, 「교양교육 정상화의 길」,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 혁신 토론회, 2019.11.27.

한국교양기초연구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2016.  
한국폴리텍 II 대학, 「2020-2021 대학요람 - 2020학년도 금형디자인과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2019.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년도 학문분야평가인정제 교양교육분야 종합보고서」,  
평가보고 ER 제2001-245-1432호, 2001.  
OECD,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서울: 알에이  
치코리아, 2016

<https://www.sheridancollege.ca>

<https://www.wmcc.edu>

<https://www.konige.kr>

<https://ko.wikipedia.org>

<부록 1>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설문조사 문항

**[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본 설문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이며,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 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연구책임자 주현재 삼육보건대학교 <02-3407-8680> hjnow@shu.ac.kr

소속 대학	직 책	성 명

**대학의 일반정보**

1. 귀 대학의 재학생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     )

- ① 2000명 미만
- ② 2000명 이상 3500명 미만
- ③ 3500명 이상 5000명 미만
- ④ 5000명 이상

2. 귀 대학(본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

-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② 비수도권

3. 귀 대학의 교양 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     )

- ① 교무처 산하 교양팀
- ② 교무처 산하 센터 또는 원
- ③ 독립된 센터 또는 원
- ④ 교양학부 또는 교양학과

4. 귀 대학의 학과분류에 운영되는 모든 계열에 체크해 주십시오.

계열	공과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     )	(     )	(     )	(     )	(     )	(     )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5. 기존의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 선택 가능) (     ,     )

- ①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기여하였다.
- ②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 ③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유효하다.
- ④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최대 2개 선택 가능) ( , )

- ① 균형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
- ② 직업교육, 실천적 실무교육
- ③ 전공교육을 지원하는 전공기초교육
- ④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식 교육, 일반적 역량 교육

**교양교육과정 개발**

7. 귀 대학의 교양 졸업기준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2년제	학점
3년제	학점
4년제	학점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 대학이 설정한 교양 졸업기준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적절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늘려야 한다.
- ③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줄여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9. 귀 대학의 수업연한별 교양 졸업기준학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제 별로 이수학점 비율을 1개씩 선택)

적절한 수업연한별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비율 (전체 졸업학점 대비 %)					
비율	①	②	③	④	⑤
학제	10% 이하	11~15%	16~20%	21-24%	25% 이상
2년제					
3년제					
4년제					

※ 연한별로 해당 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십시오.

10. 다음 중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 개 선택 가능) ( , , )

- ① 글쓰기 (의사소통)
- ② 영어(외국어)
- ③ 디지털 문해력
- ④ 고전 읽기
- ⑤ 인간과 사회
- ⑥ 자연과 기술
- ⑦ 문화와 예술
- ⑧ 기타( )

## 교양교육과정 운영

11. 귀 대학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십니까? ( )

- ① 대학 졸업이수 범위 내로 학년별 동일 교과목/학점 이수로 운영
- ② 대학 졸업이수 범위 내로 계열/학부별 동일 교과목/학점 이수로 운영
- ③ 대학 졸업이수 범위 내로 학과별 전문성을 고려한 교과목/학점 이수로 운영
- ④ 대학 졸업이수 범위 내로 기타 운영방법 ( )

12.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방법(교과목/이수학점 등) 결정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담조직 중심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
- ② 계열/학부에서 특화하여 차별화된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
- ③ 학과별로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
- ④ 학생 및 산업체의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

13.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답해 주십시오. (최대 2개 선택 가능) ( , )

- ①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의 방향성 확립
- ②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과정의 적정 운영 비율 제시
- ③ 기초교육 영역, 교양교육 영역 등 교양교육과정의 체계 수립
- ④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제시
- ⑤ 전문대학의 교양필수교과목(핵심교양 또는 중핵교과) 제시

14. 전문대학 교양교육과 관련한 아이디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남겨 주십시오.

( )

- 감사합니다 -

## 연구과제명

---

---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A-23층

전화 02) 6919-3914

인쇄처 댁스

전화 02) 960-2108

---

---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